

**2020**

**July 7<sup>Tue.</sup>**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다문화인문학 콜로키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다문화인문학**

**일시**

2020년 7월 7일(화) 15:00~19:00

**장소**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에메랄드홀

**주최**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주관**

인하대 BK21+사업단

인하대 토대연구팀

**후원**

인하대학교

한국연구재단



#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다문화인문학 콜로키움

- 주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다문화인문학
- 일시: 2020년 7월 7일(화), 15:00~19:00
- 장소: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2층 에메랄드 홀
- 주최: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 주관: 인하대 BK21+ 사업단, 인하대 토대연구팀
- 후원: 인하대학교, 한국연구재단

## Program

시 간	내 용
15:00~15:10	<div style="text-align: right;">사회: 김영순 연구소장</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소개</li> </ul>
15:10~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림병 ‘코로나 19’ 이후 생활세계의 인식과 전망</li> </ul> <div style="text-align: right;">임재해 (안동대 명예교수)</div>
15:30~1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문명의 위기와 새로운 삶을 위한 성찰</li> </ul> <div style="text-align: right;">김 영 (인하대 명예교수)</div>
15:50~16:00	 휴식
16:00~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택트 시대, 나는 누구와 컨택할 것인가?</li> </ul> <div style="text-align: right;">박혜영 (인하대 교수)</div>
16:20~1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사회의 생명 정치와 詩의 공동체</li> </ul> <div style="text-align: right;">나희덕 (시인, 서울과기대 교수)</div>
16:4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 시대의 생태와 사회·문화적 함의</li> </ul> <div style="text-align: right;">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div>
17:00~1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li> </ul>
17:50~19:00	 저녁 만찬



# 2020

July 7 Tue.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다문화인문학 콜로키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다문화인문학

목 차  
contents

01

돌림병 ‘코로나 19’ 이후 생활세계의 인식과 전망 ..... 1  
임재해 | 안동대 명예교수

02

현대문명의 위기와 새로운 삶을 위한 성찰 ..... 29  
김 영 | 인하대 명예교수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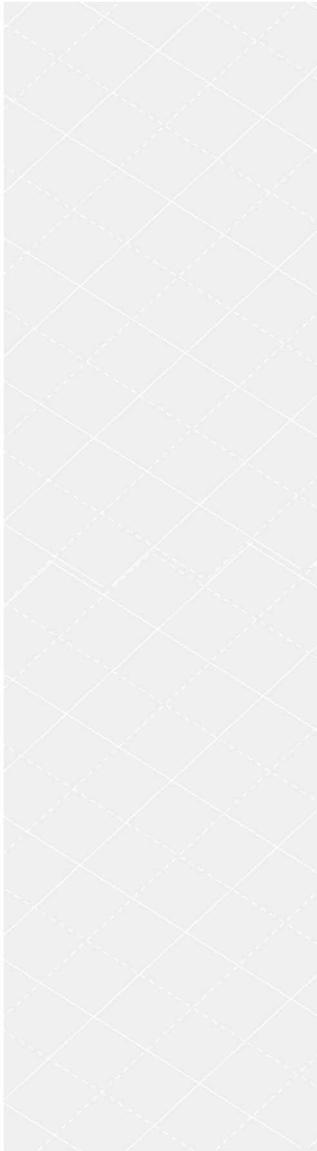
언택트 시대, 나는 누구와 컨택할 것인가? ..... 37  
박혜영 | 인하대 교수

04

위험사회의 생명 정치와 詩의 공동체 ..... 45  
나희덕 | 시인, 서울과기대 교수

05

감염 시대의 생태와 사회·문화적 함의 ..... 59  
박인기 | 경인교대 명예교수





**2020**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다문화인문학 콜로키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다문화인문학

01

# 돌림병 '코로나 19' 이후 생활세계의 인식과 전망

임재해

안동대 명예교수





# 돌림병 '코로나19' 이후 생활세계의 인식과 전망

임재해 (안동대 명예교수)

## 1. '코로나19'의 생태학적 기능 역설적 인식

지금 지구촌이 살아나고 있다. 돌림병 코로나19의 확산 덕분에 하늘이 더 푸르러졌고 공기도 더 맑아졌다. 공장 가동이 멈추고 차량 운행이 제한되자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고 대기오염도 크게 잦아든 까닭이다. 자동차 소음이 사라지자 새 소리가 들리게 되었으며, 스모그 현상이 사라져 대기가 맑아지자 도시 근교의 푸른 숲이 선명하게 보이고 밤하늘의 별자리도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관광객이 줄어든 베네치아의 운하는 물속의 해파리가 보일 만큼 깨끗해졌다.

공원에는 평소 보지 못한 야생 동물들이 한가롭게 거닐고, 대도시의 시가지에도 양과 염소떼, 사슴 등의 짐승이 사람들 대신 활보하기 시작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근처에서는 코요테가 사람들 가까이 나타났으며, 애리조나의 한 쇼핑몰에는 손님 대신 멧돼지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산짐승이 내려와 창문을 기웃거리며 집안을 들여다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고, 런던 교외 주택가에 사슴이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 딸이 갇혀 있는 사람들 모두 안전하게 잘 있나 보려고 산타가 보낸 것”이라고<sup>1)</sup> 전하며 주민들은 반가워했다.

사람들이 열썬거리지 않는 도심의 강물에도 오리와 거위를 비롯한 물새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며 노닌다. 러시아의 한 도로에는 검문하는 경찰관과 자동차들 사이로 오리 가족이 유유히 걸어가기도 한다. 프랑스 남부 연안에는 무게 60톤에 달하는 참고래가 모습을 드러냈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리들리 바다거북이 인도 오디샤주 해안에 산란을 하려고 10년만에 다시 나타났다. 칠레 산티아고 거리에는 퓨마까지 나타나 통금 상태의 도심 곳곳을 자유롭게 다녔다고 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강변의 거위 새끼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자가격리 상태나 가택연금 조치로 집안에 머물게 되자, 공기가 맑아지고 물이 깨끗해진 것은 물론, 사람들이 점유해 왔던 자리를 온갖 짐승들이 대신 차지하게 된 것이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야생 동물들이 마치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지구 곳곳에 출현하는 진풍경을 이루며, 지구촌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기상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6%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sup>2)</sup>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어렵다. 지구 가열화로 빛어지는 기후위기가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19 위기보다 더 대규모적이고 장기 지속적이다. 코로나19는 기껏 사람들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위협하지만, 기후위기는 지구생명 전체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되돌이킬 수도 없는 생태학적 현상이다.

1) 권근영, 「'사슴.염소떼' 격리 도시에 뜻밖의 '손님들'」, Jtbc, 2020년 4월 23일(<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236584>)

2) 박홍구, 「코로나19의 '역설' 생태계 복원...인류에 관제 남겨」, YTN, 2020년 4월 26일([https://www.ytn.co.kr/\\_ln/0104\\_202004260746254225](https://www.ytn.co.kr/_ln/0104_202004260746254225))

따라서 탈중심주의 시각에서 보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구촌을 총체적으로 위협에 빠뜨리는 인간바이러스이다. 코로나19는 지금 인간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여 지구생태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신성한 파수꾼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의 창궐로 지구생태계가 살아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그 생태학적 순기능을 포착한다면, 오히려 인간이야말로 지구생명을 잡아먹는 바이러스 구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지역과 민족, 국가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들며 확산된다. 코로나 앞에서 지역의 경계나 나라의 국경은 무의미할 따름이다. 지구촌은 생태학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이다. 특히 세계화가 진전된 현재 상황에서는 누구든 지구촌의 연결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바이러스의 지구적 창궐이 인류는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모든 공간적 경계를 허물어버린 바이러스는 사회적 경계와 차이의 장벽도 무너뜨려 버렸다. 국가와 인종, 종교, 신분, 직업, 빈부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한다. 바이러스에게 인간이란 모두 동일한 감염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감염시키는 까닭에 인간은 모두 대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준다. 신분차별이나 빈부차별처럼 민족의 우열이나 국가의 대소에 따른 차별 인식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 하는 것을 자명하게 일깨워 준 것이 코로나19이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의 모순을 지적하는 일종의 고발자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발자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정치의 영향, 그것이 조직을 파괴하는 과정과 독성을 고발한다. 그와 동시에 일상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이끌었고 오늘날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고발한다. 과장 없이, 이것은 '열린 무덤으로 가는 길'이다.<sup>3)</sup>

코로나19는 인류의 대재앙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열린 무덤으로 가는' 신자유주의를 환송하는 것이다. 인간중심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 같은 기존 통념들을 일시에 깨뜨려 주는 인류 성장의 대전환점 구실을 하는 축복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 세계사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이후의 시기로 크게 시대구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태를 한갓 돌림병의 팬데믹 현상으로 국한하여 인식하고 효과적 방역대책과 백신 개발에 골몰하는 것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계적 지성이나 최고 권력자마저 피하지 못한 치명적 질병은 코로나19가 아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질병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엉뚱한 극우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자들이다. 정부가 '영세상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제, 재난기금 지급,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조치를 두고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극우 정당과 언론, 개신교도들이<sup>4)</sup>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는 정책을 사회주의로 낙인찍는 자들이 자연생명과 함께 가야 한다는 코로나19의 경고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까닭이다.

문명에 대한 인간의 자만과 자연생명에 대한 인간의 횡포를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코로나를 이단과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장하며, 코로나19가 일깨워준 진실을 엉뚱하게 왜곡하는 데 급급하다. 따라서 위기의 지구생명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코로나19을 앞세워 인간바이러스를 퇴치하려 한다는 진실을 제대로 포착한다면, 인간 중심의 시장경제 체제와 과학기술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생태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을 기획해야 한다. 인류사의 전개와 지구촌 경영에 대한 총체적 전망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구상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신세계를 변혁적 수준으로 개척해나가야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린다.

3) 프레데릭 로르동, 「코로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파탄'낼 수 있을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139호, 2020년 4월호, 15쪽.

4) 성일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가 더 우려되는 이유」, 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139호, 2020년 4월호, 34쪽.

## 2. 돌림병 펜데믹 현상의 세계사적 분기점 포착

세계사적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군사력을 앞세운 무력 강국 중심의 제국주의에서 경제력을 앞세운 무역 강국 중심의 제국주의로 이동했으며, 최근에는 창조력 발휘로 문화 강국 중심의 제국주의가 형성되고 있다. 문화적 제국주의는 자민족 중심의 전통문화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대중문화 창출에 의해 최근에 시작된 것이다. 대중문화의 세계화는 일정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경제적 이윤까지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경제강국이 곧 문화강국이고 문화강국이 곧 경제강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정한 경제적 수준에 이르면 문화적 창조력의 발휘로 기존의 경제강국을 넘어서는 문화강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예측이 진작 제기되었으며 문화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은 21세기를 맞이해서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 저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문화산업의 꽃인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된 것이다. K-팝은 10여 년 전부터 세계의 젊은이들을 사로잡았으며, K-드라마는 그 이전부터 세계의 안방을 석권했다. 최근에는 K-영화까지 아카데미를 석권하는 쾌거를 보였다. 한국은 대중문화의 세계화로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며, 경제가 아닌 문화를 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군사강국, 경제강국, 문화강국 중심으로 전개된 세계화 과정에 뜻밖에 큰 충격을 준 것이 코로나 19이다. 세계 각국이 군사력과 경제력, 문화력을 경쟁하는 것은 국제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세계 질서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창궐은 국가를 넘어서 인류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서 국가와 민족은 물론, 군사력과 경제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새로운 사태를 빚어내고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바이러스의 침투는 전지구적 공격이자 인류사회의 대재앙으로서 국가 단위의 역량이나 제국주의 수준의 세계화 체제로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계화가 인류를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바이러스의 전지구적 침투는 사실상 외계인의 지구촌 침공과 같은 상황이다. 외계인의 침공하면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세계화의 수준이 높은 대도시 생활자가 더 위험한 것처럼, 바이러스의 침투 또한 세계화 수준이 높은 국가나 도시일수록 더 위험한 처지에 빠뜨리기 마련이다. 외계인이나 바이러스의 공격 목표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격 가능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 특히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문명국가의 대도시부터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지구촌의 강자인 G2부터 무너지고 유럽의 선진국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이다.

지금 C19의 공격으로 지구촌 인구는 거의 50만 가량이 죽었고 900만이 감염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도 위기 사태는 계속 진행 중이다. 가장 피해가 큰 미국은 2백만 감염에 12만이 죽었다. 최근 어떤 전쟁에서도 미국인이 6개월 만에 2백10여 만 명의 사상자를 낸 기록이 없다. 5년이나 끈 2차대전 기간의 사상자에<sup>5)</sup> 견주어 보면 피해가 훨씬 더 막대하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할지 알지 못한다. 게다가 감염에 따른 사상자의 속출은 전지구적이다. 1,2차 대전보다 지구촌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태를 세계 3차대전이라 일컬었다.

세계 3차대전은 핵전쟁이 되거나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되리라는 예측과<sup>6)</sup> 달리 바이러스전쟁이 되었다.<sup>7)</sup> 코로나의 침공은 사망자 속출과 사재기, 의료붕괴, 경제위기, 강력한 봉쇄조치, 공포감 조

5) 노병천, 『圖解世界戰史』, 연경문화사, 2020, 개정증보판에 따르면, 세계2차대전에서 미국 장병은 5년 동안 571,822명이 부상을 입고 292,100명이 사망했고 민간인 사상자는 사실상 없었다.

6) 그레이엄 앨리슨 지음, 정혜운 옮김, 『예정된 전쟁』, 세종서적, 2018, 283쪽에서 “향후 수십 년 안에 미국과 중국 간에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 단지 가능하지만 한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은 우리 대부분이 인정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했다. 사실은 이 책 전체가 미중 전쟁을 ‘예정된 전쟁’으로 규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 할 수 있다.

7) 임재해, ‘세계3차대전’, facebook, 4월 12일의 담벼락글.

성 등으로 세계대전 이상으로 충격과 피해가 크다. 전시에 흔히 있는 일처럼, 이탈리아에서는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텅 비어버린 로마 길거리에는 경찰의 포범들만 어슬렁거린다”고<sup>8)</sup> 할 정도이다. 6.25 전쟁 당시에도 중단하지 않았던 강릉단오굿 축제도 올해는 시민들과 관객의 참여 없이 원격으로 할 만큼 심각하다.

전시상황은 중동의 산유국까지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전의 중동지역 전쟁과 달리 3차대전에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전혀 대응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동에 전쟁이 터지면 OPEC이 석유생산량 감소로 맞서기 일쑤였다. 제1차 석유파동은 1973년 10월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OPEC이 원유 생산량을 크게 줄이자, 석유값이 배럴당 3달러에서 11달러까지 폭등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석유파동은 중동지역 전쟁이나 분쟁에 의한 유가 급등에 의한 충격이라면, 바이러스트대전에 의해 촉발된 최근의 석유파동은 유가 폭락 사태로서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상황을 초래해 충격을 주었다. 지금까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었던 OPEC의 석유생산량 조절과 유가 결정 주도권도 코로나전쟁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 회원국에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가격전쟁에 돌입한 까닭이다.<sup>9)</sup>

OECD 선진국의 석유소비가 기후위기와 코로나사태를 맞이하여 급속하게 감소되자, 산유국의 안 전망 구실을 하던 OPEC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다.<sup>10)</sup> 마이너스 유가처럼 석유 소비의 감소로 빚어진 가격 폭락은 산유국으로서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석유부국들에게는 치명적 폭격이다. 근본적 원인을 환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석유자원을 고갈시키는 산유국을 유가 폭락으로 공격한 셈이다.

경제위기는 산유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이라는 데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바이러스트대전의 치명적 피해는 수많은 인명 피해 이상으로 큰 세계적 경제파탄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경 차단에 따른 수출과 교역의 감소, 생산시설의 가동 중지, 셔터를 내린 시장 등으로 상거래가 극도로 침체되고 있다. 생산공장이 멈춘 곳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없다. 실업대란도 불을 보듯 뻔하다. 선진국일수록 마이너스 성장 폭이 엄청나게 크다. 미국은 -27%로 성장을 폭락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마이너스 유가도 충격이지만 더 큰 충격은 경제대국들이 한결같이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을로 가고 있는 사실이다.

경제대국의 지위를 누리던 미국은 “순식간에 신경제대공황에 접어들었다.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률은 무섭게 치솟고 있다.”<sup>11)</sup>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수록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람은 서민들이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격리조치를 취하는 동안에도 서민들은 일터에서 죽어간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서민들은 생계를 위해 위험 속에서도 일터에 나가야 하는’<sup>12)</sup> 까닭이다. 마치 군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선에 나가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세계3차 코로나대전은 국경이 전선이 아니고 군대기지가 피침 대상이 아니다. 일터가 곧 위험한 전선이고 교회와 학교, 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피침 대상이자 위험한 전쟁터이다. 따라서 막강한 군사력과 핵무기를 비롯한 어떤 신무기도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군사대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을 비롯한 강국들이 더 위험하고 피해와 손실도 더 크다. 핵전쟁의 가공할 피해 이상으로 코로나19의 3차대전에서 피해를 모면할 수 있는 안전한 국가는 없다.

([https://www.facebook.com/search/top/?q=%EC%84%B8%EA%B3%843%EC%B0%A8%EB%8C%80%EC%A0%84&epa=SEARCH\\_BOX](https://www.facebook.com/search/top/?q=%EC%84%B8%EA%B3%843%EC%B0%A8%EB%8C%80%EC%A0%84&epa=SEARCH_BOX))

8) 제랄디나 콜로티, 「로마, 봉쇄된 도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139호, 2020년 4월호, 12쪽.

9) 사데크 부세나, 「마이너스 가격으로 치달은 석유의 새로운 지정학」, 한국어판 139호, 2020년 6월호, 16쪽.

10) 사데크 부세나, 위의 글, 17쪽.

11) 토마스 프랭크,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변화는 없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141호, 2020년 6월호, 4쪽.

12) 제랄디나 콜로티, 위의 글, 같은 곳.

지금까지 세계대전 승전국이 지구촌의 패권국가로서 지위를 누렸다. 1차대전 승자였던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그랬고, 2차대전 승자인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도 그랬다.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2차대전 승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3차대전에서는 이 국가들이 대국다운 면모는커녕 가장 치명적 피해를 입은 패전국가의 처지에 놓였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전과 달리 국제적 전쟁이 아니라, 외계인의 침공처럼 바이러스에 의해 지구촌 인류사회 전체가 무차별 침공을 받고 있는 전방위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대국에 의존해서 이 전쟁의 비극을 피해갈 길이 없다. 핵우산은 있어도 아직 바이러스 우산은 아무도 갖추지 못한 탓이다.

군사강국이나 경제대국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3차대전의 특수성이다. 이 대전에서 승리하는 길은 3 가지이다. 첫째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여 확산을 차단하는 것, 둘째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 셋째는 공권력으로 강제적 봉쇄 조치를 하지 않고 최대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셋은 서로 다른 길인 것 같으나 사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첫째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둘째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문제는 예사 질병과 달리 전염성이 빠른 특이한 바이러스인 까닭에 단시간에 확산을 방지할 수 없다. 적어도 1,2년은 가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에 둘째 문제와 셋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중국처럼 첫째 길을 가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여 도시를 무력으로 폐쇄하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다. 우한의 봉쇄는 사실상 국가 공권력이 지역사회를 침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한의 1천1백만 주민들은 코로나의 집중적 침투와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공격을 함께 당한 셈이다. 두 달 반 동안의 봉쇄로 2종의 전쟁을 치른 우한시의 비극적 참상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첫째 방역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초기에 큰 혼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셋째 강제적 자가연금 상태로 시민들을 가두는 바람에 둘째 문제인 경제적 타격도 심각하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성장의 폭이 크다. IMF가 전망한 OECD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미국이 -5.9%, 영국 -6.5%, 프랑스 -7.2%, 독일 -7.0%, 호주 -6.7%, 캐나다 -6.2%, 스페인 -8.0%, 일본 -5.2%로서 평균 -6.5% 이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사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여 파산의 우려도 점쳐진다.

그러나 한국은 유일하게 방역정책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민들의 사회활동도 민주적 통제로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된 까닭에, 경제적 피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모범적이지 효과적이어서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K-방역으로 호명될 만큼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면서 외교적 지원을 다투어 요청받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세계화되자 한국의 방역수준과 함께 국제적 위상이 급부상했다. 경제성장률도 -1.2%대로서 OECD 국가 중 1위로 예측되고, 2위 성장률을 보인 룩셈부르크의 -4.9%보다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k-방역과 민주적 통제는 물론 경제성장률까지 세계 최고로 평가되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국민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의 수준이다. 그동안 시민의식은 선진국이 높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한갓 고정관념이었을 뿐이다. 사람의 본성은 평소보다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드러난다. 이른바 선진국의 생필품 사재기는 물론, 미국의 총기와 탄약 사재기 현상은 한 마디로 꼴불견을 넘어 야만성을 드러낸 것이다. 더군다나 코로나 관련 총기 무장 시위조차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지난 4월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의사당 앞에서 무장한 시민들이 코로나19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5월에는 미시간주 의사당 앞에서 주지사의 코로나19 관련 이동제한 명령에 반대하는 총기 무장 시위가 일어났다.

무장한 경찰이나 군병력이 자국의 시가지를 장악하고, 시민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이러스의 침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감금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웃지 못할 비극이 초래되었다. 무장봉기한 시민군들도 바이러스에 반격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접전

중인 지방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총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한 마디로 공세를 취하는 적 바이러스는 제쳐두고 자국 국민들끼리 내전을 벌이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난세에 영웅이 출현한다고 국가의 역량도 재난이 닥쳤을 때 제대로 발휘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갑자기 우뚝해진 것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반면에 평소에 강국을 자처하던 미국은 물론 유럽도 K-방역을 본받지 못해 안달이다. 그런가 하면, 생필품 사재기를 하며 다투다가 한국인을 닦자고 외치며 자제하는 상황까지 보여주기도 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염치없는 일이 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다. 결국 팬더믹 상황을 극복하려면 한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한 셈이다. 그러므로 k-방역과 함께 k-시민의식까지 세계 각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C19의 침공으로 전대미문의 총체적 위기를 맞이한 지구촌에 K-방역이 새로운 한류를 이루게 되었다. 한국의 진단키트 수입은 물론 빠른 검사기술과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벤치마킹하려고 정보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갑자기 한국은 의료선진국으로 부상되면서 방역한류가 대세를 이루자, 세계 언론들은 한국문화와 한국경제, 한국인의 생활세계까지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국을 주목하는 것이 현재의 C19의 침공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코로나의 침공으로 미국이 무너지고 유럽도 무너져 내리면서 팬더믹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지구촌이 일시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일은 외계인 침공의 SF영화에서나 있는 비현실적인 일이다. 그러나 C19의 무차별 침공은 지금 당면해서 겪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누군가 나서서 지구촌의 인류를 지키는 영웅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위기의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로서 현실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 한국이 세계를 구하는 최전선에서 성공적으로 싸우고 있다.<sup>13)</sup> 그러므로 세계3차대전의 코로나 전쟁에서는 한국이 승전국의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진정한 전쟁의 승리는 인명을 살상하는 무력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력전쟁은 반문명적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은 대규모 인명 살상과 재산을 파괴한 인류문명의 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인류 공동의 적인 역병과 싸워 이겨서 인류의 생명을 최대한 구하고 재산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인간다운 삶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전쟁에서 지구촌을 구하는 최고의 리더십 발휘로 1,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과 달리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있다.<sup>14)</sup> 따라서 2차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미국 중심의 세계 재편에서 3차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되는 세계질서의 중심에 한국이 놓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와 지성들은 이러한 세계사적 인식을 절감하고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시대에 관한 전망과 구상을 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

### 3. 국제질서 재편과 세계체제에서 한국의 위상

지난 세기에는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사강국 수준으로 세계질서가 편성되었으나 금세기 전후에는 경제강국 중심으로 세계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었다. 2차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위상이 부각된 것은 경제력이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힘의 질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중국이 G2(Group of 2)로 새로 부상한 것도 중국의 경제력이 급격하게 성장하여 미국과 맞수가 된 까닭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이후에는 이러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어서 새로운 세계질서가 만들어질

13) 임재해, '지구 어벤져스 한국', facebook, 4월 15일 담벼락 글.

14) 임재해, '진정한 전쟁의 승리', facebook, 4월 13일 담벼락 글.

전망이다.

세계사 시대구분의 새로운 분기점을 이룬 것이 현재의 돌림병 사태이다. C19 발생 초기인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이 돌림병은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하는 수준으로 예상롭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돌림병이 중국에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미국과 유럽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자, 바이러스의 충격으로 그 동안의 세계체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첫째 충격은 G2국가의 위상을 크게 추락 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C19 발생국가이자 최대피해국가로서 오명을 떨치게 됨으로써, G2의 위상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돌림병 방역에 선도적 역할은커녕 초기대응 미비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자국민 방역조치 졸속 행태를 보였다. 게다가 C19 발병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미중 양국의 비난 성명과 외교적 갈등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만 조성했다. 적진 협력이 아니라 적진 분렬의 졸속한 행태만 숨김없이 드러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2009년 3월 "세계경제가 회복되려면 미국과 중국이 주요 20개국 (G20) 경제를 이끄는 두 개의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미중의 비중이 막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뜻밖의 C19 사태로 전지구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그러한 기대와 신뢰는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계를 이끄는 엔진 역할은커녕 어느 국가보다도 미국과 중국이 C19의 충격에 무력한 국가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C19가 지구촌 최강국 G2를 일시에 무장 해제시키고 알몸을 고스란히 보여주기에 이른 것이다.



[그림 1] 최근 신종 바이러스 발병 상황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사이의 문제로 한정될 뿐, 인류를 무차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의 침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돌림병의 창궐 앞에서는 경제적 대국과 군사적 강국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돌림병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02년의 사스 발생에서부터 신종 플루, 메르스, 에볼라, 지카,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발생주기가 2,3년으로 점차 단축되고 있다. 이런 주기라면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에 다시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될 가능성도 높다. 변종 바이러스가 속출하면 현재 사태보다 더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체제는 G2국가에 대한 종전의 위상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새로운 대안 체제로 재편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충격은 선진국에 대한 그 동안의 선입견이 해체되기에 이른 사태이다. 이른바 유럽의 선진국들은 경제대국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진보했으며 문화적으로 성숙한 나라로 인식되었다. 이른바 서구를 대표하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선진국은 역사적으로 세계사의 발전을 선도했을 뿐 아니라, 문화적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도 선진국답게 모범을 보여서 국민들의 감염과 희생을 최소한의 상황에서 종식시키리라 기대를 걸었다. 물론 그들 국가 스스로도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 감염에 대응했을 것이다. 역대 바이러스 감염에도 큰 차질 없이 잘 해결한 전력도 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진전될수록 이탈리아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세계가 초토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시 봉쇄와 자가 격리로 시가지는 전시상황과 마찬가지로 무장경찰이 통제를 하고 시민들은 제각기 집에서 연금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문제는 일부 국가 가운데 생필품 사재기 사태를 빚어서 혼란을 가중시킨 점이다. 슈퍼에는 생필품은 물론 휴지와 아이들을 먹일 분유까지 바닥이 나서 물품 쟁탈전이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였다. 미국에서는 총기와 탄약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나서 전시를 방불하게 만들었다. 사재기는 호주와 일본도 예외가 아닐 만큼 세계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신천지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도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외에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통제가 없었으며, 사재기를 하지 않아서 가게에는 생필품과 식료품이 평소와 다름없이 충분히 진열되어 있어서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기까지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함에 따라, 가장 안전할 것으로 여겼던 유럽 선진국 사회가 무장경찰이 나서서 시가지를 통제하며 시민들의 바깥출입을 강제할 만큼 매우 불안한 사회이자, 돌림병 감염 예방에 무척 허약한 체제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가 체제만 허약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 또한 바닥 수준이었다. 선진국 국민으로서 문화적 수준과 시민의식을 자랑하던 허상이 코로나의 침투로 한갓 가면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상대적으로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K방역으로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한국의 시민의식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끌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코로나19는 재앙이면서 재앙이 아니게 되었다. 왜냐하면 방역정보의 투명한 관리와 민주적 통제, 진단 키트 개발, 빠른 검사 역량 등으로 의료선진국으로 부상하게 된 까닭이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확진자의 동선 파악과, 드라이브스루와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등 한국에서 처음 개발한 방법들이 K-방역으로 일컬어지면서 국제표준화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할 표준화 추진 모델은 검사·확진 6종, 역학·추적 4종, 격리·치료 8종 등 모두 18종이다.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유엔군 사령부가 최일선에서 응전을 지휘하고 적을 퇴치해야 하는 것처럼, 세계적인 돌림병이 창궐하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구촌을 대표하는 사령탑 구실을 담당하게 된다. WHO가 적극 나서서 효과적인 돌림병 대책을 수립하여 세계 각국에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건강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빠른 백신 개발로 돌림병을 퇴치하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구촌 사령부 노릇을 해야 할 WHO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한 채, 한국의 K-방역을 ‘교과서 같은 우수 사례’로 들며, 다른 나라에서도 따르도록 제안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사실상 WHO가 한국에 사령부 역할을 위임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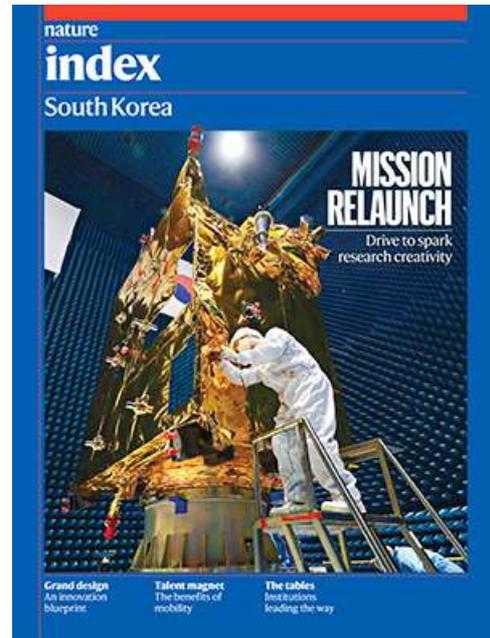
최근에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가 한국 특집호를 발간하면서, 한국이 정보통신과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라 하고, 대표 사례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신속 개발과 생산을 들었다. 과학계가 K방역을 공식 인증한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국제기구를 제치고 사실상 한국이 코로나대전의 사령탑으로 우뚝하게 떠오른 것이다. 코로나침공에 맞서는 대응 전략은 물론 방어용 무기도 한국산이 가장 우수하다.

코로나대전에 맞서 싸우는 신무기는 백신이다. 그러나 백신 개발이 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진단키트와 마스크, 방호복이 가장 중요한 무기 구실을 하고 있다. 진단키트가 적의 침투를 포착하는 첨단 정찰기라면, 마스크는 적탄을 막는 휴대용 투구이며, 방호복은 모든 공격을 차단하는 방탄용

갑옷이다. 아직 백신이라는 공격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3가지 신무기의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세계 각국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은 3차대전에서 신무기 수출 1위국 기록을 수립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되는 한국의 코로나 진단키트는 우수성이 입증된 까닭에 각국에서 수입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현재 100개국을 넘는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물량 확보를 위해 다투어 외교전을 펼치는 수준이다. 초기에 3천 달러 수출에서 최근 2.7억 달러 수출로 500배나 급등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수익 못지않게 외교적 성과도 대단하다.

방역 물품 수출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OECD국가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3단계나 높은 AA+로 자리매김했다. 팬더믹 현상 이후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국가도 한국이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에 따라 지금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총수 자리에 도전하여 사무총장 후보까지 내고 있다.



< 네이처 인덱스 한국 특집호 >

한국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사무총장 후보로 나섰는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진단이다.<sup>15)</sup> 만일 유명희 본부장이 당선된다면 세계무역기구의 첫 여성사무총장으로 기록될 뿐 아니라, 현재 리더십을 잃고 있는 WTO 체제의 위기를 제대로 복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입지와 함께 K-방역이 국제표준화를 이루게 되면 한국의 국가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세계적 리더십도 확립된다. 이미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의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을 뿐 아니라, G7에도 초청받아 앞으로 G11 또는 G12의 회원국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 변화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닥친 일도 아니다. 코로나19 이전 시기부터 이미 K-팝이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K-드라마와 K-영화가 세계를 휩쓸면서 K-문화(K-culture)가 우뚝하게 자리잡았다. 디지털 과학의 토대인 K-반도체와, 디지털 문명의 필수품인 K-스마트폰 또한 진작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문명의 일반화 바탕 없이 K-방역이 우뚝할 수 없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신규 확진자의 동선 파악은 물론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찾아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K-방역 성과는 스마트폰 보급률 1위의<sup>16)</sup> 나라여서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디지털 과학문명 시대에 기술상품을 선도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대중문화 시대를 열어가던 한국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의 3차대전을 맞아서 한국이 지구촌의 어벤저스로 우뚝하게 떠오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처지에서 보면, C19 사태는 기존 세계 체제가 흔들리면서 한국이 주요국가로 자리매김되는 새로운 세계 체제의 축으로 자리잡게 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15) 정원우, 「김상조 “유명희 WTO 사무총장 승산 있다”」, 한국경제TV, 2020년 7월 1일.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010221&t=NN>)

16) 한국은 95%의 스마트폰 보급률로 2위 이스라엘의 88%에 견주어 격차가 엄청 크다. 미국은 81%로 6위이고 독일은 78%로 8위, 프랑스는 75%로 10위이며, 일본은 66%로 13위이다.

#### 4. 차단과 격리에 따른 생활세계의 변동 전망

세계화의 진전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세계는 국경의 차단을 넘어서 두 갈래로 하나가 되었다. 하나는 제도적인 것으로 WTO 체제 아래 세계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세계가 하나의 시장을 이루었고, 둘은 기술적인 것으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마을처럼 쉽게 오가고 즉각 소통하는 지구촌(globalization)의 공간적 축소화를 이루었다. 두 갈래 세계화는 모두 개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시장의 개방과 국경의 개방이 물류의 유통과 인적 교류를 자유롭게 했던 것이다.

코로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시장과 국경이 모두 차단과 격리 상태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이러스 발생국가나 확산국가는 국경을 차단하고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은 초기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고 야당의 드센 비난이 계속되었다. 국가 사이의 외교적 갈등이나 국민적 감정으로 차단이 일방적 횡포 수준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일본이나 베트남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시킨 조치도 그러한 보기 가운데 하나이다. 입국 허용을 받지 못한 나라들 또한 상대적 조치로 해당국가를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알게 모르게 방역성과의 우열 경쟁과 함께 입국 금지에 따른 이해관계로 국제적 갈등이 고조되는 경향을 빚어냈다.

자연히 공항 풍경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종래에는 공항에서 출입국 직원과 세관 직원이 모든 출입 절차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검역기관의 직원이 파견되어서 출입하는 사람들의 감염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따라서 세관이나 출입국 심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검역관에 의해 감염 판단이 내려지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앞으로 공항은 바이러스전쟁의 최전선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방역 전선을 잘 지키려면 공항에 파견되는 검역관은 전문적인 방역 능력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항의 방역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출입국 허용여부는 물론 공항시설 전체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쟁 상황에는 군인들이 공항에 상주하며 출입을 통제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과 같이 세계적으로 돌림병 확산이 지속되되면 검역관이 공항에 상주하여 출입국 허용을 결정하는 최종 주체가 된다. 질병관리본부가 또 하나의 공항 출입국 기관으로 부상될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여행자들도 공항 출입시에는 건강상태에 대해 긴장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외국여행을 삼가가 마련이다. 까다로운 위생검역에 걸리면 출국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외국 공항에서 입국이 좌절되어 뜻밖의 격리생활을 해야 하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열쇠말이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일정한 거리로 떼어놓게 하는 사실상 물리적 거리두기 또는 공간적 거리두기이다. 따라서 다중집회는 물론 낮선 사람들끼리 가까이 부대끼는 일을 금기로 여기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던 인간관계가 ‘옷깃만 스쳐도 감염’으로 긴장하게 된 상황으로 가게 된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확진자나 접촉자 외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외출과 사회활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예 외출금지령을 내리고 가택연금 수준의 강제 통제를 했다. 집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무장경찰이 검문하는 까닭에 병원에 가거나 생필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시민들은 거의 게토 수준의 통제를 받게 된 셈이다. 그러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원격 교류와 문화 공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집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 옥상과 발코니, 베란다를 이용하여 원격 모임을 하는 것이다. 각자 악기를 들고 나와서 이웃과 마주보며 음악회를 여는가 하면, 같은 방식으로 생일잔치를 하고 축하 노래도 함께 부른다.

더 확대된 교류를 하기 위해 개인적인 활동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에 올린다. 동영상 촬영이 필수고 SNS는 물론 유튜브도 필수다. 집안에 머물면서 이웃과 소통하고 교

류하며 함께 하는 거리두기 만남과, 온라인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만남을 즐기는 원격 교류문화가 다양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개방된 베란다와 옥상의 이용가치가 높아지는가 하면, 동영상 촬영과 유튜브 제작에 따른 전자기기의 수요도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집에서 격리생활을 하며 원격 대면 문화를 누리는 데서 좀더 자유로운 양식이 자동차를 이용한 대면문화의 개척이다. '드라이브 스루'는 자동차를 탄 채 이동하면서 대면 활동을 하는 까닭에 간접 대면이면서 원격 대면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방역체제가 세계 표준이 되어가는 가운데 드라이브 스루 검진이 각광 받고 있다. 자동차 안에 앉아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상품 구매를 비롯한 다른 대면활동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드라이브 스루 횃집을 비롯해 도서관 대출과 고해성사도 자동차 승차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나아가 결혼식과 장례식까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을 보면, 신랑 신부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하객이 자동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며 축의금을 내고 인사를 나누며, 신랑 신부는 준비한 음식을 담은 봉투를 하객의 차에 넣어준다. 일체 악수나 포옹 등 신체 접촉은 없다.<sup>17)</sup>

장례식도 드라이브 스루로 이루어진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화장터에 운구차가 들어오면 신부가 건물 밖으로 나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운전자가 트렁크를 열어 관을 꺼내면 사제가 기도를 한다. 유가족과 조문객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이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따름이다. 스마트폰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장례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sup>18)</sup>



< 마드리드 한 공동묘지 화장터에서 장례식 >

물론 드라이브 스루 구매 방식이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코로나19 이후에 비로소 생긴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 방식이 진작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도 햄버거나 커피 구매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승차자의 편의를 위해서 햄버거나 커피를 차에 탄 채로 구매하도록 하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간편한 축하와 조문을 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돌림병 감염 방지를 위해서 더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가 드라이브 스루 양식을 새로운 문화로 광범위하게 자리잡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드라이브 스루는 오프라인에서 대면 접촉을 가능한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여러 영역에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비스업계에 이미 있었던 기존의 비대면 문화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대면 구매 공간인 슈퍼나 마트에 가지 않게 되자, 자연스레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택배로 상품을 받는 비대면 상품 구매가 급증했다. 2020년 2월 배달 서비스 매출이 전년 9월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던 장년층도 배달 앱을 이용하게 되었다.<sup>19)</sup> 따라서 골목상권은 쇠퇴하는 반면에 온라인 판매 업체와 택배 회사들은 거래가 급증하고 일감이 크게 늘어나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시장이 대세를 이루는 전자상거래 시대로 성큼 도약하게 된 것이다.

17) 김용섭, 「문화 격변의 방아쇠 된 코로나 19」, 『新東亞』 2020년 6월호.

18) 김향미, 「비통한 스페인 마드리드...슬픈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 경향신문, 2020년 4월 7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1054001&code=9702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1054001&code=970205))

19) 김용섭, 「문화 격변의 방아쇠 된 코로나 19」, 『新東亞』 2020년 6월호.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083171/1>)

방역산업과 의료산업, 위생산업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 진단키트 생산은 물론 관련 자재로서 마스크와 소독제, 방호복 등은 비상수급에 따라 재고 없이 생산물량을 공급하느라 제품은 물론 자재와 원료, 일손이 딸릴 만큼 가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백신산업은 4차산업 이상으로 미래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물론 빌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부호들이 백신산업에 직접 투자를 자처하고 나설 정도이다.

차단과 격리에 따른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 종교생활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 방송예배, 유튜브 미사가 일상화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이전에는 취업이 직장 구하기이자 ‘일자리’ 차지였다. 번듯한 직장 사무실에서 일정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미취업자의 꿈이었다. 자기 자리가 없어지면 그것이 곧 실직을 뜻한다. 그만큼 자리가 중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사무실 출근을 막는다.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앞으로 이 사태가 한참 지속될 것이므로 재택근무도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경영 방식에 익숙한 경영주일수록 재택근무의 우려가 크고 미래가 불안할 수 있다. 근무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신적인 경영자는 진작 재택근무를 채택해서 사무실 공간 운영비를 줄이고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워드프레스 창시자 매트 물렌웨그는 2006년에 사무실이 전혀 없는 원격 경영의 소프트웨어 회사 ‘오토매틱(Automattic)’을 설립해서 재택근무의 천국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3조원 넘는 기업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지사 사무실은 물론 본사 사무실조차 없다. 45개 국에 나아가 있는 450명 이상 되는 직원은 각자 자기 일하기 편한 공간에서 원격근무를 한다.<sup>20)</sup>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든, 승용차 안이나 카페에서 재카근무를 하든 상관없다. 자기가 선택한 근무 공간 사용에 필요한 경비도 지급한다.

채용도 비대면으로 하는 까닭에 사원들 대부분 사장을 직접 본 적이 없다. 채용면접도 화상면접이 아니라 문자 채팅을 하므로 인종과 외모, 성별 등의 차별 없이 순수 능력만으로 뽑는다. 채용 검토 기간이 5개월인데, 일정한 급여를 주면서 일을 시켜보고 신중하게 뽑기<sup>21)</sup> 때문에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마다 매출이 급증할 뿐 아니라, 원격 근무의 장점 덕분에 세계적인 IT 전문가들이 몰려드는 신의 직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설립 초기부터 원격 근무 방식을 택해서 성공했다. 이제는 종래와 같은 콘택트사회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대학교육도 거대한 대학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집착과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버려지게 된다. AI시대를 대비한 대학에서는 코로나19의 창궐과 상관없이 대학 강의를 이미 중단하기 시작했다.

미국 최고의 대학들은 2012년 무크 기업을 설립해서 자신들의 강의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강의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다. “2019년부터 의과대학 강의를 전면 폐지한다. 다른 학과들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공식발표했다. 왜냐하면 강의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종이 된다고 판단한 까닭이다.<sup>22)</sup> C19 사태와 상관없이 하드웨어 수준의 기존 대학은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다만 이런 추세가 서서히 진행되는 까닭에 예민한 지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제는 뜻밖의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진작부터 디지털 대학이 여럿 있었지만, 학생들이 비대면 강의를 기피하고 지원을 꺼리는 바람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어느 대학이든 온라인에서 비대면 원격 강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터넷에 강의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강단강의로 가려져 있던 교수들의 강의능력이 상대

20) 신지선, 「사무실이 사라진다...생산성 높이는 자율적 원격근무」, 뉴스토마토, 2016년 7월 20일.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73888>)

21) 김용섭, 「집콕, 언컨택트--뉴트렌드 뉴웨이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20년 4월 27일 ([https://www.youtube.com/watch?v=X\\_DAMDTQ0is](https://www.youtube.com/watch?v=X_DAMDTQ0is))

22) 이지성, 『에이트: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차이정원, 2019, 41~42쪽.

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디지털대학 교수들은 제 철을 만난 터라 평소의 원격 강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러나 강의실에서 대면강의로 학생을 장악하던 교수가 온라인 강의에서 쨍쨍 매거나 학생들에게 소외되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평소에 주목받지 못하던 교수가 온라인에서 학생들의 인기를 끄는 교수로 새삼스레 부각되기도 했다. 각종 프로그램과 앱을 잘 다루고 PPT와 동영상 자료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수강생들을 사로잡는 교수와 달리, 강의실 강의처럼 모니터 앞에 앉아서 주입식 강의에 머무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호응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규교수가 아닌 프리랜서 교수들이 비대면 강의에 능력을 발휘하여 학생들을 사로잡기도 한다. 시간강사들이 가상현실에 널려 있는 풍부한 자료를 끌어들이 재구조화하고 재해석하며 학생들과 양방향 토론을 흥미롭게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수강 만족도를 높여준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교수가 되지 못했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든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또는 유튜브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강단이 아닌 다양한 공간에서 강의할 기회가 많다. 집에서 혼자 강의하는 것을 동영상에 담아 온라인으로 널리 공유할 수 있다. 강의를 공개되는 까닭에 강의 능력이나 학문적 역량이 교수와 강사의 지위에 대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뿐 아니라, 대학 교수직에 취업을 하지 않고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일터를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유튜브 강의에는 교수 뺀치는 수준 높은 강사들이 많다. 사이버 강의에서 확보한 역량으로 대학 교수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수사회는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원격 강의 수준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력으로 재편될 수 있다.

비대면 강의의 개방화와 가속화는 대학의 소멸을 가져올 뿐 아니라 대규모 하드웨어 캠퍼스가 점점 공동화될 가능성이 높다. 굳이 대형 캠퍼스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사이버공간에서 얼마든지 수준 높은 강의를 골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벌주의는 퇴조하고 강의 능력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학위보다 실제 연구논문의 수준이 교수 채용에 더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학벌과 학위를 갖추고 인맥과 학맥에 힘입어서 교수직에 취업하는 전통적 인사 행태는 잦아들고 누구든 실제 강의 역량과 연구 수준에 따라 온라인에서 수강생을 확보하고 자유롭게 강의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이동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고지식한 강단교수는 물러가고 유튜브의 스타강사가 뜨는 시대가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강단 중심의 학벌주의는 물러나고 강의와 연구 중심의 능력주의가 사이버 공간에서 부각되기 마련이다. 콘택트사회의 대학교육보다 더 많은 교수들이 더 많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강의를 더 수준 높게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교육의 장이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원격 화상 강의와 온라인 수강 현상을 비대면이라 하여 비접촉이라 할 수 있을까. 대학캠퍼스에서 이루어진 대면강의에서는 소수의 수강생들만 만나는데, 온라인 강의에서는 동시 접속 수강생이 수천 명일 수도 있고 강의영상 구독으로 수만 명이 수강할 수도 있다.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나 대학강의 수강이 불가능한 처지의 사람들까지 주체적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강의와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원격 강의가 오히려 더 많은 접촉과 더 다양한 콘택트를 가능하게 하며 평생교육의 기회도 자연스럽게 확보되기에 이르렀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새로운 컨택트 경향으로 가고 있다. 대형 교회나 성당의 구조물로 권위를 자랑하며 신도들의 관심을 끄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신도수를 자랑하는 시대도 머지않았다. 물리적 공간인 교회와 성당은 아무리 커도 제한된 인원만 참여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비대면 예배와 미사는 접속 인원이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 천주교에서는 황창연 신부가 나서서 먼저 사이버 성당의 모범을 보였다. '다볼 사이버 성당'을 6월 13일부터 열고 온라인 미사를 시작했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최근 10만에 가깝다.<sup>23)</sup> 성당에서 하는 전통적인 대면미사에서 꿈도 못 꿀 만큼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명동성당은 물론 로마 교황청의 성베드로대성당에서도 미사에 이렇게 많은 신도들을 참여시킬 수 없다. 특히 돌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성당 미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도 안된다. 교황님도 성당 제단에 혼자서 미사를 봉헌했다. 그러나 사이버성당에서는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미사 참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각자 자기 방에서 온라인 접속만 하면 가능한 까닭이다. 동시에 많은 인원이 접속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인정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는 까닭이다.

성당에서 하는 대면미사에서 위협하게 수백 명 참석하는 것보다 사이버성당의 영상미사에서 안전하게 수만 명 이상 접속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인 미사이자 하느님과 더 많은 만남이 이루어진 미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느님과 더 생산적인 콘택트를 위해서 성당이라는 하드웨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성당 없는 미사가 대세로 갈 전망이다. 세계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든 이 미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분야와 활동 영역에서 원격문화로 가는 것이 대세이자 기대되는 전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5. 언택트의 원격문화와 온택트의 긍정적 전망

원격문화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이 조성되자, 세계 지성들은 다투어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사회를 언택트사회로 상정하고 문제적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sup>24)</sup> 그러나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앞에서 원격 강의와 미사를 다루면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콘택트 사회에서 변화되는 새로운 사회는 언택트 사회가 아니라 뉴콘택트 사회라고 여기는 까닭이다. 콘택트에서 언택트로 가는 것은 대안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까닭에 근본적으로 언택트를 지향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미래는 새로운 콘택트 사회 또는 콘택트 다양성 사회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전망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가족들끼리 한 집에 살면서도 제각기 자기 모니터를 매개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물론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를 제각기 들여다보며 정보를 검색하고 다른 사회와 교류하며 친구들과 채팅한다. 부부끼리 한 방에 앉아서도 서로 다툼 듯이 스마트폰을 제각기 들여다보며 카톡 방에서 따로 논다. 직장 동료는 물론 친구들끼리 같은 공간에 머물러도 모니터를 이용한 원격 소통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공간적 거리를 초월하여 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 일상화된<sup>25)</sup> 까닭이다.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날 수 없는 가족과 친구들도 인터넷 또는 SNS를 수단으로 원격 소통을 하므로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수시로 더 자유롭게 만난다. 게다가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대면 접촉보다 원격 접속을 더 즐겨하고 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들도 자리를 찾아가거나 불러와서 대면소통을 하기보다 온라인 채팅이나 문자나 카톡으로 원격 소통을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무실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함께 만난다고 해서 콘택트가 아니고, 서로 대면하여 소통하지 않는다고 하여 언콘택트라 할 수도 없다.

다만 콘택트의 방법만 다를 뿐이다. 온라인 채팅으로 오히려 더 쉽게 더 자주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과 접속하고 소통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서로 접속이 가능한 가상공간에서 만나기

23) <https://www.youtube.com/watch?v=vnTtsQBYn7I>.

24) 질리앙 브리고, 「언택트 사회에서 안녕하신가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141호, 2020년 6월호, 1, 8~9쪽.

25) 임재해, 「공동체문화의 두 얼굴, 마을공동체와 가상공동체의 길」, 『미래학으로서 공동체문화 연구의 패러다임 정립과 활용』,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학술대회 자료집, 2019년 2월 27일.

때문이다. 가상공간에서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사생활 침해도 없는 까닭에 양방향 소통이 더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공감대를 이루고 서로 교류와 협력을 함으로써 가상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종래처럼 같은 마을에 사는 지역성이 아니라, 스마트폰 번호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오래 함께 사는 이웃도 서로 스마트폰 번호를 모르면 친밀한 관계라 할 수 없다. 길에서 잠깐 만나거나 서로 스쳐도 전번을 알려주고 전번을 등록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가까운 이웃이나 다름없다.<sup>26)</sup> 가상공동체의 일원으로 접속과 소통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언제든 현실공간의 만남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이제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에 사는 이웃보다 전번의 공유가 곧 콘택트의 열쇠나 다름없다. 아파트의 열쇠를 갖춘 것처럼 언제든 등록된 전번으로 양방향 소통과 접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다양한 앱은 무제한 접속의 열린 세계로 들어가는 창이다. 그러므로 미래사회로 갈수록 현실공간의 만남이 가지는 제약과 불편을 넘어서 온라인 접속에 의한 자유로운 만남과 소통이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코로나바이러스가 물리적 대면접촉을 방해하는 까닭에 비대면 접속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앞으로는 현실공간에서 확보한 사회적 신분보다 누가 사이버공간에서 많은 콘택트를 하고 호응을 받느냐 하는 것이 사회적 위상을 결정하는 준거가 된다. 현실공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수준, 외모, 성별, 인종, 나이 등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다. 직원들 모임이나 회의를 하게 되면 격식을 앞세우고 계급과 직책에 따라 발언의 무게 중심이 다르다. 상대적으로 하위 직급은 발언 기회도 없다. 받아쓰기로 시간만 낭비한다.

그러나 온라인 회의에서는 그러한 격식과 차별이 없고 민주적 의사소통으로 회의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아질 뿐 아니라, 실제 업무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인정받는 능력주의 사회로 가게 된다. 회사의 직급과 상관없이 접속자 누구든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사무실 회의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게 부여되고 있다. 원격 근무 회사 오토메틱이 이미 입증한 사실이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지시에 복종하여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온라인에서 다른 방식의 안전한 접촉 방법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격리와 차단을 겨냥한 비대면의 원격 문화는 언택트사회가 아니라 뉴택트 또는 멀티택트 사회의 문화라 해야 마땅하다.

뉴택트라 하여 현실공간에서도 서로 돌볼 수 있는 사회적 만남의 콘택트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따뜻한 대면접촉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는 더 다양한 접속과 관계망이 이루어져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격리와 차단에 종속된 언택트만 추구해서는 공동체가 붕괴되고 개인적인 삶도 망치게 된다. 따라서 선부른 언택트 사회를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로 표방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금까지 대면문화를 누린 시대를 콘택트사회라 한다면, 앞으로 온라인 접속으로 비대면 문화를 누리게 될 시대를 언택트 사회가 아닌 온택트(Ontact) 사회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온택트 사회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사이버 세계의 접속에 따른 예절이 새삼 문제된다.

우리 시대는 스킨십(skinship)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접속'보다 클릭십(click-ship)<sup>27)</sup> 의한 '소통의 접속'이 지배하는 생활세계에 이르러 있다. 타자와 접속, 특히 이성과의 접속을 잘못하면 문제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스킨십은 가능하면 삼가야 할 예절이다. 그러나 클릭십은 사이버세

26) 임재해, 위와 같은 곳.

27)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포스팅과 댓글에 적극적으로 클릭하는 마음가짐이나 정신적 태도를 클릭십(clickship)이라는 말로 일컬어 보았다. 사람들끼리 몸으로 만나는 물리적 공간의 '스킨십'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접속을 '클릭십'이라고 조어한 까닭에 영어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여기서 처음 만들어 쓰는 말이어서 앞으로 용어화 될지 알 수 없지만 네티즌이나 애플리케이션에게 매우 유용한 디지털 용어가 될 것이다.

계의 시작이자 끝이며, 지켜야 할 기본예절이다. 우선 클릭하지 않으면 사이버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고 사이버세계에서 마음껏 여행을 즐기더라도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전혀 없다. 누구와 상호소통하면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면 클릭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다수의 클릭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sup>28)</sup>

지금 우리는 콘택트 사회의 스킨십 문화에서 온택트 사회의 클릭십 문화로 가고 있다. 페이스북에서든 유튜브에서든 사이버 공간에서는 클릭십이 접속의 기본적 행동양식이자, 친구를 맺고 상호소통하는 최소한의 예절이다. 누가 인터넷의 사이버 생활세계에서 클릭십을 잘 발휘하며 또한 다수 접속자들에 의해 선택을 받고 지지 댓글을 많이 받는가 하는 것이 명성의 척도이다. 구독자 수나 ‘좋아요’ 수가 곧 그 사람의 명성을 결정하는 준거이다.

학교생활에서 성적이 낮아 소외된 학생들이나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어서 사회적 인지도가 없던 사람들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주부들의 살림살이나 농부들의 농사 활동은 물론 아이들의 재롱과 반려견의 일상도 사이버세계에서 관심을 끌고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크게 오르면 유명해지는 것은 물론 일정한 수입도 올릴 수 있다. 현실적인 제약이나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존재감이 없던 사람들이 온택트 사회에서 명성을 얻는 반면에, 콘택트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도 사이버공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해 존재감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에서는 우뚝한 학벌이나 재벌2세의 금수저, 명품가방, 고급승용차, 빼어난 외모 등이 문제 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는 인정투쟁의 기준이 다른 까닭이다. 잘난 인물이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인물, 사회적 성공을 거둔 우뚝한 인물이 아니라 접속자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인물이 온택트사회에서 선택을 받는다. 그러자면 사회적 스펙보다 접속자의 관심을 유발할 만한 창조적 발상이 중요하고, 권력과 금력의 후광보다 자기 개인의 숨은 재능을 발휘하는 역량이 두드러져야 한다.

따라서 온택트 시대는 낡은 콘택트 시대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새로운 만남의 세계를 민주적으로 열어갈 수 있다. 혈연과 학연, 지연, 인종, 종교에 따라 사회적으로 주어진 편파적인 콘택트 사회에서 개인이 발휘하는 능력에 따라 창조적 다양성과 일상적 유용성이 선택받는 수요자 중심의 민주적인 온택트 사회로 간다는 것은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온라인 세계의 인정투쟁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접속과 선택, 댓글, 공유 등은 외부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접속자의 자발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까닭에 주권 침해가 없다. 그러므로 콘택트사회보다 온택트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더 능력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희망적 전망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예사 시민과 학생들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까닭에 온라인 접속이 자유롭지 못했다. 틈틈이 하는 카톡이나 SNS가 고작이다. 다만 상사나 교장 등 직급이 높은 간부들만 자유로운 접속 기회를 누렸다. 하지만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이 주류를 이루는 온택트 시대에는 온라인 접속 기회가 자유롭게 보장된다. 아무도 엿보지도 간섭하지도 않는 자기공간에서 사이버 세계의 자유로운 섭렵은 물론, 자기의 생활 영역의 범주를 다양한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차단과 격리의 비대면 사회를 언택트사회라고 간주하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다중 접속이 가능한 멀티콘택트 사회, 또는 깨어 있는 동안 늘 접속이 가능한 온택트 사회로 가게 된다는 긍정적 전망에 더 기대를 걸어야 한다. 앉아서 자유롭게 유목하는 온택트문화의 노마디즘이야말로 시간을 절약하고 연료소비를 줄이며 대기를 맑게 하여 지구를 살리는 대안 콘택트문화로 적극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콘택트 사회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차단과 격리에 따른 언택트 사회를 과잉 해석하여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은 일정한 충격이 있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구조물을 허물지 않고서 새 구조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파괴 작업은 창조공학의 일환이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을 파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더 나은 새 탑을 쌓으려는 전망을 구상해야 희망적이다. 현재 잘못 가고 있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와 기후위기를 악화

28) 임재해, 「공동체문화의 두 얼굴, 마을공동체와 가상공동체의 길」, 앞의 발표자료집, 35~36쪽.

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아무도 허물 수 없었는데 코로나19가 인간을 대신해서 단시간에 해체해 주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현재 체제에 갇히지 않아야 코로나대전을 변혁운동의 계기로 삼고 이후의 시대를 창조적 전망으로 열어갈 수 있다.

모든 현상은 양면성이 있다. 사람들이 사라지자 짐승들이 출현한 것처럼, 캄캄한 밤이 있는 까닭에 불을 밝히는 문명이 만들어졌다. 현실공간의 만남이 불가능하자 가상공간의 만남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가까운 사람과 헤어져 있으면 전화 소통이 잦은 것처럼, 오프라인 콘택트가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온라인 콘택트는 더 빈번하게 된다.

혈연과 학연, 지연으로 뭉쳐져 있는 한국사회는 사실상 과잉 콘택트 사회이다. 과잉 콘택트 관행을 무너뜨려야 새로운 사회가 열린다. 열린 사회는 닫힌 사회와 다른 공간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면에 함께 존재한다. 같은 시공간에 모일 수 없는 언택인 까닭에 거리와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온택을 더 자주 하기 마련이다. 현실공간에서는 많이 모이면 문제가 되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많이 모일수록 신바람이 난다. “모든 것이 정지되는 속에서 새 것이 잉태되고 있다.”<sup>29)</sup> 강단강의가 멈추자 교수의 무능이 드러나고 강사의 능력이 인정받는 원격강의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언택트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고 혁신적인 온택트사회가 구성되고 있다는 전망을 할 수 있어야 미래가 있다.

## 6. 원격문화의 일상화와 의식주 생활세계 구상

구제역이나 조류독감과 달리 코로나19를 아주 빠르게 전지구적으로 감염시킨 주체는 돼지도 닭도 아닌 사람이다. 사람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바이러스도 이동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바이러스도 모이는 까닭이다. 사람들이 빨리 이동할수록 확산 속도도 빠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바이러스 감염자도 증폭되기 마련이다. 바이러스는 발생 원인도 사람이고 전지구적 확산도 사람 탓이다.

따라서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을 막으려면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는 백신이 발명될 때까지 장기간 지속될 뿐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세계는 자연스럽게 바이러스의 감염을 방지하는 활동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시적인 사태가 아니라 반복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인간의 방역생활은 일상 문화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위생활동이자 방역생활이지만, 바이러스의 시각으로 보면 바이러스야말로 인간의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문화변동의 주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출한 무대에서 인류 전체가 일정한 연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생존방식과 확산경향에 따라 온 인류의 생활세계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자발적 문화변동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강요된 문화변동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의 연출은 사람들에게 접촉을 금지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일정한 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요구한다. 일상적으로 악수를 금지하고 포옹을 삼가게 하며 서로 떨어져서 지내게 만든다. 그러나 감염 가능성이 있으면 자가격리의 낮은 단계에서 가택연금, 병실입원, 음압병동 수용까지 높은 단계의 의료적 격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코로나19의 연출 지시에 따라 사람들은 차단과 격리를 최우선 가치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 다수가 서로 부대끼는 대도시의 시가지나 쇼핑몰, 관광지, 백화점, 터미

29) 김채현, 「코로나19가 강제한 이탈과 변동」, 춤웹진 130, 2020. 6월호.

널, 학교, 교회, 공연장, 경기장 등이 문제적 공간이다. 사람들이 다수가 모이는 공간과 시설은 기피하거나, 제도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시설은 문을 닫기도 한다. 극장과 공연장, 교회, 학교, 경기장은 아예 문을 닫아서 사람들의 모임을 차단해서 집단 활동을 못하게 통제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동은 곧 바이러스의 동선이자 침투경로이고, 사람들의 모임은 곧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이동과 모임은 국제적이든 지역적이든 가정적이든 규모와 상관없이 문제적이다. 사람들이 곧 바이러스의 숙주인 까닭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계가 더 민감하고 접촉도 더 친밀하기 마련인 가정의 일상적 의식주생활도 바이러스 감염에 더 예민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재택생활과 자가격리의 최후 보루인 주생활부터 주목해보자.

### 6.1. 주생활의 변화 전망과 구상

집은 재택근무를 비롯해서 재택공부, 재택신앙, 집밥식사를 하는 것은 물론 직업에 따라서 자가공연과 훈련을 해야 하는 연습공간이다. 게다가 감염 우려가 되는 가족을 2주간 격리해야 하는 공간이 집이다. 종래에는 집이 밤에만 잠깐 머무르는 한갓 잠자리 공간으로서, 거의 하숙집 같은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24시간 머물면서 직장과 학교 기능은 물론 운동과 훈련, 공연 기능까지 하는 종합공간으로서 집이어야 한다. 감염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집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 가능한 간이 병원 기능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집은 가정생활의 보금자리 기능 외에, 부모들의 재택근무를 위한 편리한 사무공간이며, 휴교로 등교하지 않는 자녀들의 원격학습이 가능한 교실공간이어야 한다. 운동선수나 공연 예술가들은 화가의 아틀리에처럼 집에서 운동과 공연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운동선수나 공연예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고급아파트보다 마당이 있는 교외의 전원주택이 선호될 수 있다.

종래처럼 막연히 평수 넓은 아파트가 고급주택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투자가치가 높고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고층아파트보다 24시간 부모자녀가 함께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물면서 각자 자기 일과 공부, 훈련, 휴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능적 가치의 주택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아파트라도 경제적 투자가치가 높은 도심의 고층아파트보다 이용가치가 높고 기능적인 교외의 전원형 아파트가 더 주목받게 될 것이다.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성격과 가구주의 직업 또는 취미에 따라 맞춤형 설계도 긴요해질 전망이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집안에서 가족과 접촉을 줄이면서 혼자 격리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집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혼자 방 안에서 기본적인 일상이 가능한 원룸 시설의 방 하나를 특별히 갖출 필요가 있다. 자가격리용 방은 전시에 숨을 수 있는 비밀공간을 집안에 마련해 두는 것과 같은 안전장치이다. 집이 사무실이고 집이 학교이며 집이 놀이터이자 피난처로서 안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단지나 공공건물 건축을 담당하는 대형설계회사보다 소형설계사무소가 맞춤형 단독주택 설계의 재능을 자랑할 때이다. 자연히 도시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거주보다 시골의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귀촌 또는 귀농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다. 재택근무로 도시 사무실 공간이 텅 비는 것처럼, 도시를 떠나는 시골로 가는 경향이 나타나면 도시의 공동화 현상도 나타나고 집값 하락도 예상된다. 그리고 도시인구의 분산으로 인구 과밀화에 따라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 조짐이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이 더 바람직하게 바뀔 전망이다.

가옥구조도 거실과 침실 공간으로 구성된 종래의 설계에서 직장생활의 사무공간과 교실수업을 대신하는 학습공간 위주로 설계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신앙생활도 교회나 성당, 사찰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으로 하는 경향으로 갈 것이다. 가족들의 신앙에 따라 가정예배가 가능한 신앙공간이 만들

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종래보다 방마다 기능적 독립성을 더 잘 확보하고 외부와 네트워크가 원활하도록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박이용 PC보다는 쉽게 휴대 가능한 노트북이나 태블릿 컴퓨터가 더 유용하다. 따라서 노트북과 태블릿PC의 수요와 보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컴퓨터에도 노트북처럼 영상회의나 영상수업이 가능하도록 으레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ZOOM 프로그램이나 앱도 깔려 있어야 한다. 앞으로 주택은 층간소음 방지는 물론 방간소음 차단 기능도 완벽하게 해야 사무와 학습에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벽체의 단열기능과 집안의 냉난방 기능 못지않게 층간 또는 방간 방음 기술 시공이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들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만 집에 남게 된다. 아이들끼리 어떻게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공부와 놀이활동 및 식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노부모를 집에서 모시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필요하다. 부모들이 집안사정을 들여다보고 아이들이나 노부모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일반화될 것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가정의 모든 가전제품과 조명기구, 커튼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시스템이 건축공학 또는 가정인테리어의 기본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집안의 청소 기능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물, 특히 손으로 자주 만지는 시설물을 아주 청결하게 관리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가족의 휴대폰을 함부로 주지 않아야 한다. 손으로 가장 많이 만지는 물건이 휴대폰이다. 어른들도 쉽게 휴대폰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일을 삼가야 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휴대폰 장식에만 기울었던 관심을 소독과 청결에도 기울여야 한다.

집안 구조물에서 온가족 누구나 손으로 가장 많이 만지는 것이 출입문 손잡이다. 바깥 외출을 마치고 집안으로 들어올 때는 출입구 손잡이를 만지기 전에 소독액으로 손부터 닦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집바깥에 있는 수도물로 손부터 씻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기술적으로는 손잡이를 만지지 않고 출입할 수 있도록 자동화가 필요하다. 출입문의 자동화도 손으로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 경우는 여전히 감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손이 아니라 발로 터치하는 스위치를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하다. 아이디어를 짜내야 가능한 일이다.

집안 청소나 공공기관 청소도 방식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청소도구 하면 바닥을 닦는 걸레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 동안 대부분의 청소는 바닥을 쓸고 닦는 청소였다. 따라서 자동청소기도 바닥을 닦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청소 시기도 아침 또는 저녁에 하루 한 차례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부터는 바닥청소보다 손이 닿는 곳을 소독하고 닦아내는 청소가 하루 몇 차례씩 수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볍게 소독액을 뿌리는 작업과 손이 닿는 곳을 부분적으로 닦아내는 청소가 새로운 청소문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집안의 상비약 상자 구성도 달라지게 되었다. 간편한 밴드나 붕대보다 마스크가 더 중요한 상비품이다. 충분한 마스크 확보는 물론, 체온기가 비상약품 상자의 필수품이 되어야 한다. 집안에서 누구든 환자가 발생하면 체온부터 재는 것이 가정의료의 기본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출근을 하거나 모임에 나갈 때 조금이라도 몸이 찌부듯하면 체온부터 재고 열이 있으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은 잠자리 공간이 아니라, 온 가족이 24시간 2주일 이상 머물러도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독립 공간이어야 한다. 바이러스 침투로부터 온 가족을 지켜주는 병커이자, 일과 공부, 놀이, 신앙생활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 시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전한 집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집이 거주공간으로서 안정성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 6.2. 식생활의 변화 전망과 구상

집이 중요하면 집밥도 중요하다. 직장 회식이 줄어들고 가족들의 외식을 삼갈 뿐 아니라,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아서 3시 세끼 집밥을 먹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큰 홀에서 단체로 먹는 외식산업은 축소되고 배달음식업은 성행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가족문화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집밥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식중독 없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고, 어른들은 외식과 술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가족건강이 한층 나아질 수 있다.

집밥문화도 혁신 가능성이 높다. 종래처럼 찌개나 전골 등 큰 냄비에 끓여서 식구들이 공동으로 퍼먹는 방식은 자제될 것이다. 제각기 쓰던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공동으로 먹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지 않아야 감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밀접시를 이용하여 덜어먹거나, 음식을 더는 데만 사용하는 수저를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가족마다 별도로 밥상을 차리는 전통 상차림 양식도 대안 상차림으로 다시 등장할 것이다. 문화되들이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다.

식당에서도 옆자리와 칸막이 시설을 하거나, 혼자서 먹을 수 있도록 좌석배치를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비대면의 격리에 따른 혼밥 또는 혼술 경향이 더 진전될 수도 있다. 공동배식을 하는 업체 식당이나 학교 식당에도 자리를 마주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보고 앉아서 먹도록 하는 기이한 풍속도 새로 출현했다.

집밥을 먹는 가족들이 늘어나자, 이미 동네반찬 가게는 반찬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성업 중이라고 한다. 외식산업은 축소되고 배달음식과 반찬산업은 더 발전할 전망이다. 집밥문화의 경향에 따른 식기나 조리기구 개발, 반대로 집밥문화를 새로 만들어갈 주방기구 산업의 창조적 발전이 기대된다. 집밥의 비중이 커지자 요리강좌도 인기를 끌게 되었다. 전업주부들만 배우던 요리강좌가 가족들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출근하던 남편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안에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거드는 풍속이 일상화될 조짐이다.

독립거주자는 각자 혼밥이나 혼술을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온라인에서 접속하여 함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실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정해둔 식사시간에 밥을 함께 먹으면서 서로 먹은 음식과 요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세상살이와 관련된 밥상머리 대화를 나누어 혼밥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규칙적인 식사시간 지키기도 가능하다. 온라인 술판에서도 서로 좋아하는 술과 안주를 차려 놓고 술잔을 들어 함께 건배를 하며 노래를 불러 술을 권할 수 있다. 현실공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혼밥, 혼술 주체들의 축제가 삼삼오오 이루어질 수 있다. 외로운 혼밥 생활자들을 위한 먹방의 새 경향도 전망된다.

## 6.3. 의생활의 변화 전망과 구상

돌림병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몸에서 감염 통로가 되는 입과 손, 그리고 눈을 차단해야 한다. 입을 통로로 한 전염과 감염은 마스크 착용으로 막을 수 있다. 마스크를 부정하던 국가에서도 이제는 마스크 착용을 일반화하고 있다. 마스크의 일상화로 여성들의 얼굴 성형 부위와 화장 양식도 달라진다. 마스크로 가려지는 입과 코, 턱보다 늘 드러나게 되는 눈이 매력의 포인트다. 따라서 쌍꺼풀과 눈썹을 비롯한 눈 성형이 늘어날 것이며 립스틱보다 눈 주위를 꾸미는 아이메이크업용 화장품과 이것을 지우는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눈도 중요한 감염로이다.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을 만지면 감염이 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공중 전염이나 접촉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시력과 상관없이 안경을 끼는 까닭에 다중집회에서는 마스크와 함께 선글라스 착용을 권장할 만하다. 선글라스가 실내 생활에는 불편한 까닭에 야외에서는 선글라스처럼 색깔이 짙어지고 실내에 들어오면 색깔이 사라져 투명해지는 가변성 안경 곧 변색렌즈를 사용한 트랜지션스 안경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경은 방역 기능과 함께 새로운 패션의 안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외선의 양에 따라 선글라스로 조절되는 변색 안경은 눈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능적이다. 문제는 마스크와 안경을 함께 사용하면 안경에 김이 서려 불편하게 되는 점이다. 따라서 안경에 김이 서리지 않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은<sup>30)</sup> 물론, 아예 김이 서리지 않게 하는 마스크와 안경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런 기능을 갖춘 마스크와 안경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안경 김서림 방지제나 김서림 방지 안경담이가 안티포그용으로 시판되고 있다. 마스크와 안경이 일상화되면서 안경은 물론 마스크의 패션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자연히 마스크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갈 수 있다.

전염병 감염에 가장 중요한 매개 구실을 하는 것이 손이다.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입이나 눈을 만지면 감염되는 까닭에 손 소독이나 손씻기를 일상화해야 한다. 새로운 청결문화가 자리잡아서 다른 질병의 발생도 막아주는 순기능도 한다. 실제로 감기 환자가 줄어들고 안과환자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손으로부터 감염을 줄이기 위해 손의 청결 외에 장갑을 착용하는 방법도 있다. 장갑이 일종의 손 마스크이자 손 방호복이다. 따라서 추위를 막는 방한용 장갑이 아니라 돌림병을 막는 방역용 장갑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여름철에도 외출시에는 착용이 간편하며 보기도 아름다운 패션형 방역용 장갑이 유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전 시기보다 장갑은 새로운 여성 패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여 손이 한갓 패션의 수단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손이 가장 문제적인 활동을 하는 까닭이다. 인간은 누구나 손으로 대부분의 중요한 일을 한다. 선행도 손으로 하지만 악행도 손으로 한다. 이웃을 도우는 따뜻한 손길은 아름답지만, 손버릇이 나쁘면 악의 손이 된다.

범죄 이력을 입증하는 가장 긴요한 자료가 손이 남긴 지문이다. 이제는 손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전파의 가장 중요한 매개 구실을 한다. 손의 접촉이 곧 바이러스의 감염 통로이다. 따라서 손은 윤리적이어서 할 뿐 아니라, 가장 위생적이어서 한다. 손길만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손 자체도 위생적으로 청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에 대한 철학적 의미부여도 새롭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손으로 악수하는 인사법도 삼가게 된다. 서로 안아주며 얼굴을 비비는 서구식 인사법은 더욱 문제적이다.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허리를 숙여 목례하는 전통적인 인사법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 사태가 장기지속적으로 예상되는 까닭에 악수나 포옹의 접촉 인사법은 극복되어야 한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전통적 인사방법이 미래의 대안 인사방법으로 세계화될 가능성도 있다.

## 7. 코로나19 이후시대 인류사회의 변혁적 진보

이제 한국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야 한다. 세계가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는 한국의 K-방역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와 문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국은 코로나대전 중에도 국회 의원을 뽑는 총선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였다. 모든 국가에서 총선을 미루었던 까닭에 외신들은 일련의 한국특집 보도를 하면서 4월 15일의 한국 총선을 집중 취재해서 보도했다. 관중 없는 야구 경기도 한국에서 가장 먼저 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중계채널인 ESPN이 중계권을 사서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을 생중계하자 세계 축구팬들이 열광했다. 미국과 한국 선수들의 경기 방식을 비교해서 해설하는 등 한국의 독특한 야구문화가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이 K-방역에 따른 민주적 통제로 일상생활이 개방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무엇이든 한국이 먼저 길을 열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C19 이후 시대의 역사는 한국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아무도 가지 않은

30) 나경철, 「마스크 쓸 때 '안경 김서림' 해결법 인기」, 뉴스투데이, 2020년 3월 25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676052\\_32531.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676052_32531.html)

길을 먼저 가려면 지도부터 그려야 한다.

확진자 동선을 포착하고 공유하는 작업도 일종의 작은 방역지도 그리기 작업이다. 그럼에도 유럽의 일부 언론은 한국의 K-방역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면서도 확진자의 동선공개는 사생활 침해라고 나무란다. 그들은 시민들을 모두 집에다 가둔 채 특별한 경우만 외출증을 발급하여 허용하는 초유의 심각한 통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미국과 유럽의 도시통제나 봉쇄 정책은 유대인들을 일정한 지역에 강제 이주시켜 외부 출입을 통제된 게토(Jewish Ghetto)나 다름없는 탄압이다.

따라서 전대미문의 행정적 집단 통제 정책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개별적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사생활 침해로 비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확진자 동선공개보다 온 시가지를 게토화하여 시민들을 집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더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게토 경험이 있는 노령의 유대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그때 상황이 데자뷰 되어 한층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확진자 동선은 사생활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염 위험 공간을 나타낸 돌림병 확산 방지 지도 작성이다. 지도가 요긴한 지리 정보이듯, 돌림병 지도는 C19 상황을 극복하는 필수적인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sup>31)</sup> 그럼에도 사생활 공개라고 비판하는 것은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제작을 두고 적에게 나라의 지리정보를 알리는 것이라고 문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물론, 이동 경로와 그 과정에서 만난 접촉자들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확진자 개인의 사생활 보호 탓에, 확진자가 머문 공간에 함께 있었거나 있게 될 수많은 사람들은 집단 감염의 위험성 앞에 장님 노릇을 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미 확진자에 의해 감염된 자들조차 2주일 동안은 감염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확진자 사생활의 비밀 보장화는 마치 중국 우한의 안과의사 이원량(李文亮)이 C19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공론화하려 하자, 중국 당국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유언비어로 몰아서 체포하여 입막음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중국사회의 허물 폭로나 국가 망신을 초래한다는 중국정부의 비밀주의 탓에 의사 이원량이 죽은 것은 물론, 중국 인민 수만 명이 죽었으며, 세계 각국에 엄청난 사상자와 경제적 파국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므로 선부른 사생활의 비밀 보호로 시가지를 통째로 게토화하는 사회적 감금이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자유의 탄압이자 기본권의 치명적 훼손이다.

더 문제는 한국처럼 확진자의 동선을 포착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능력이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사생활 침해를 들먹인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행정업무의 디지털화는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디지털문화를 누리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카드결제가 일상화되고 CCTV가 길목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동선 추적은 불가능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가재난금 지원 과정을 한일비교를 해서 다루었다. 한국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280만 가구는 신청하기 전에 이미 통장에 지원금이 입금되었을 뿐 아니라, 누구든 스마트폰으로 긴급재난금 신청이 가능해서 이틀만에 신청과 지급이 모두 완료된다. 그러나 한때 G2였던 일본만 하더라도 아날로그 행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지원신청서를 받아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다시 우편으로 회신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 탓에 온라인으로 신청 카드 발급에만 한 달이나 걸렸다. 따라서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러워서 직접 행정기관에 찾아가 신청하는 줄이 길게 이어져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겪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IT기술로 무장한 한국이 신속하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반면에, 아직도 옛날식 서류 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답답해 하는 일본인들의 불만을 소개했다. 한국 방역당국의 확진자 사생활 공개를 문제삼은 프랑스만 하더라도 스마트보급률이 75%로서 95%인 우리보다 20%나 뒤떨어져서 세계 10위에 불과하다. 프랑스에서 스

31) 임재해, '돌림병 지도', facebook, 2020년 6월 5일, 담벼락글.

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온라인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있어도 꺼내 쓸 수 없는 것은 물론 본인계좌 확인도 할 수 없다. 소규모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위고 브리쿠는 “스마트폰 없이는 내 돈을 내가 쓸 수 없다니! 어이가 없습니다.”하고 한탄했지만, 스마트폰 없는 23%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계좌이체도 온라인 거래도 할 수 없다.<sup>32)</sup>

더군다나 가정에 컴퓨터가 없어서 온라인 교육이 어렵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29세 인구 중 약 30%가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휴교 중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2020년 4월 21일 세계 학생의 약 절반이 집에 컴퓨터가 없고 43%는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고했다.<sup>33)</sup>

프랑스의 교사 ‘야스마나는 온라인 교육도구에 접속할 수 있는 Moodle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없으며, ‘소규모 수업을 위해 어떻게 화면을 공유하고 오프라인 화면을 차단하며 학생들에게 PDF파일을 포워드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sup>34)</sup> 했다. 교사 플로리앙 프티는 ‘우리에게 제공된 프로그램은 1980년대에 개발된 통신단말기 미니텔보다는 낫지만, 윈도우 95보다는 못하다’고 불만을 드러낼 정도이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디지털 장비는 물론 관련 프로그램도, 교사의 역량도 갖추지 못한 상태가 프랑스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는 확진자 동선 확보와 같은 정교한 조사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디지털 행정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는 확진자 동선 파악을 당사자의 구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면담 조사 작업은 사실상 인력 낭비만 할 뿐 정확한 동선 포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보통신기술(IT) 수준이 낮고 디지털 문화생활이 정착되지 않은 사회에서 한국의 확진자 동선 파악을 개인의 자유 침해라고 비난하는 주장은 일종의 신포도론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처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한국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세계적 선도국가 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문명시대가 열리는 전환기여서 가능한 일이다. 이미 4차산업 시대는 눈앞에 닥쳤고 레이 커즈와일이 예측한 특이점(特異點, singularity)이 머지않았기 때문이다. 커즈와일은 구체적인 이론과 기술적 근거를 갖춘 과학적인 예측으로 2045년을 특이점 시기로 딱 부러지게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체제와 정치구조가 만들어지고, 경제와 시장, 직업이 펼쳐질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sup>35)</sup> 누군가 먼저 앞설 수밖에 없다.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을 앞세운 채 실천은 미루거나 머뭇거리던 세계가 이제는 코로나19에 떠밀려서 바꾸지 않을 수 없고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날로그 시대에 과학기술과 문화생활의 기득권을 누렸던 지금까지의 선진국은 디지털시대에는 새로운 기술과 문명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아날로그 문명에서 출발이 한참 늦어진 후진국 한국이 이른바 선진국과 함께 출발한 디지털문명에서는 상당히 앞서고 있다. 같은 수준에서 출발을 하면 후진국도 앞설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이 입증한 것이다.

아날로그문명이 디지털문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C19의 느닷없는 출현으로 더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셈인데, 그렇다고 하여 새로운 시대는 과거와 전혀 다른 시대로 비약하는 것이 아니다. 탈근대의 두 가지 방향은 다가올 미래를 가능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성큼 나아가는 전위적 혁신의 미래구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버리고 왔거나 잊어버렸던 과거 문화를 재계승해야 하는 전통적 회귀의 미래구상이 있다.

앞의 탈근대로 가려면 온택트사회의 디지털 문명과 AI 문명을 더 앞당겨 실현하는 길이고, 뒤의 탈근대로 가려면 생태학적 전통생활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 두 길은

32) 쥐릴앙 브리고, 앞의 글, 9쪽.

33) 질리앙 브리고, 앞의 글, 8~9쪽.

34) 질리앙 브리고, 앞의 글, 8~9쪽.

35) 레이 커즈와일, 김명남·장시형 옮김, 『특이점이 온다』, 김영사, 2007, 543쪽, “2050년에 직업시장, 가족, 생태계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종교적 경제적 시스템과 정치구조가 세계를 지배할지 실제로는 아무도 모른다.”

정반대의 길이지만 동시에 필요하다. 가장 전통적이면서 가장 첨단적이어야 하고, 전통을 현재화하고 미래를 앞질러야 한다. C19는 이 두 길을 함께 가라고 인류에게 닦달하고 있다.

전위적 변혁의 탈근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참고할 준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까닭이다. 따라서 용의주도한 설계와 창조적 발상, 능동적 의지가 함께 작동해야 실현 가능하다. 반면에 전통적 회귀의 탈근대는 분명하다. 이미 우리 인류가 겪어온 체험적인 생활세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익숙하기까지 하다. 그러므로 전통적 탈근대의 길을 가려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쉽게 실현 가능하다.

근대를 이끌어간 자본주의 체제의 산업화, 도시화, 금융화를 극복해야 한다. 산업화는 농업을 폐쇄하고 이농현상을 조장하며, 도시화는 인구를 집중화 과밀화를 조장했다. 수도시설이 고장 나거나 전기가 끊어지는 사고가 나면 온 도시가 불편한 공간으로 돌변한다. 은행에 잔고가 많고 지갑에 현금이 두둑해도 자가격리되거나 가택연금 단계에 이르면 어떤 낭패를 당할지 알 수 없다. 금융자산이 고립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까닭이다.

미국 중산층도 시가지가 봉쇄되자 집안에 휴지가 떨어져서 찢찢 뒀다고 하는 가구가 한둘이 아니다. 마실 물과 음식물이 장기간 자급되지 못하면 더 황당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일정한 공간에 고립되면 금융자산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용품의 자급 가능성이 중요하다. 도시와 달리 시골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농경활동으로 자급자족 체제와 이웃사촌 관계를 이루고 있는 까닭에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과 상관없이 자립적인 자율공동체로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시골살이 초보농부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에도 시골마을 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으며 평소처럼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었다. 시골마을은 공동체답게 모두 안면을 트고 지내는 익숙한 관계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낯선 군중의 도시사회와 달리, 시골은 인구가 너무 적어서 문제인 익숙한 얼굴들로 구성된 공동체사회이다. 그러므로 격리와 차단이 경계심이 예민하게 작동되지 않는다. 서로 신뢰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격리와 차단에서 문제되는 대상은 어느 집단에서나 낯선 사람이다. 낯선 사람은 마치 전시의 밀정처럼 그 감염여부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단과 격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으레 낯선 사람들이 상대적 대상이다.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시키는 것도 사실상 같은 논리다. 실제로 바이러스와 관련한 여론 조사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6)</sup>

도시란 사실상 낯선 사람들의 사회이다. 이웃사람은 물론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도 이웃과 낯선 관계 속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도 서로 경계하고 차단하려 들기 마련이다. 번잡한 시가지에서는 경계심이 더욱 민감해진다. 그러나 시골 마을에서는 낯선 사람이란 없다. 왜냐하면 서로 안면을 트고 지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 안전한 미래생활을 위해서 차단과 격리가 문제되지 않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골로 귀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므로 농촌 공동체문화는 전통문화이자 ‘오래된 미래 문화’라는 노르베르그 호지(Helena Norberg-Hodge)의 탁견이<sup>37)</sup> 새삼 입증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지구촌의 몸살이다. 몸살의 고통은 몸의 질병을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다.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해도 열이 나지 않고 통증이 없으면 더 위험하다. 특히 전염병은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만드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코로나19의 전염성과 발열성은 지구촌의 불건강성에 대한 자명종 구실을 하며 인간바이러스의 반생태학적 문명을 경고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라고 하는

36) 「포스트코로나19...달라지는 미래」, 시사IN 제 664호, 2020년 5. 3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8699> 참조)

37)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저, 김종철 외 역, 『오래된 미래』, 녹색평론사, 2001 개정판, 224쪽. “올바른 미래를 찾는 우리의 노력은 불가피하게 자연(인간본성을 포함하는)과의 더 큰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근본적인 패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에 라다크의 마을공동체 문화를 오래된 미래문화로 인식했다.

지구촌 질병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슬기롭게 대응하면, 이미 여러 가지 순기능으로 지구촌의 건강이 되살아난 것처럼, 3차대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체제가 바람직하게 재편될 것이다.

온택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콘택트 사회의 지배세력인 기득권이 해체되고 세대차에 따른 노소의 능력이 전도되며, 강대국 중심의 선후진국 우열이 역전되는 상황은 변혁을 넘어서 세계사의 혁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의 혁명은 많은 민중의 희생적 투쟁을 거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순기능에 따라 역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혁명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지구는 하나라는 말이 구호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구촌 공동체이자 인류가 하나이며 모두 대등한 존재라는 사실도 실감나게 인식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평등을 가르치고 배웠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무기력한 관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진실을 코로나바이러스가 실감나게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목을 조르기만 하던 이스라엘도 과거와 달리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팔레스타인 당국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제공했다.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sup>38)</sup>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실감나게 입증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인들의 목을 조르는 일이다. 두 민족은 서로 이웃이자 한 몸이다. 아무리 높은 장벽을 세워도 돌을 갈라놓을 수 없다. 하느님이 수 천 년 동안 애써도 일깨워 주지 못한 진실을 C19 바이러스가 단숨에 일깨워준 것이다. 보이지 않은 신의 손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말없는 경고이자 영적 가르침이 빛어낸 이스라엘의 기적이다. 성자의 가슴 속에 영적 스승이 자리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C19는 위기의 인류를 구하려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현현한 바이러스의 하나이며, 우리시대의 메시아이자 미륵이고 진인(眞人)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인간중심주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C19는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간 종을 가두거나 격리 시키자 지구촌이 생태학적으로 되살아나는 현상을 기적처럼 입증해 보였다. 인류가 아니라 지구촌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것이 C19가 일으킨 기적의 진실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자기 가슴에서 제각기 발현되고 있는 C19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자각한다면, 인류가 만들어가는 지구촌의 미래는 지속가능성을 더 희망적으로 전망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낙관은 사려 깊지 못하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세계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한다는 현실인식과 함께 집단 의지가 필요한데,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기 어렵다. 현실인식은 물론 집단 의지도 가장 허약한 부분이 지구가열화에 따른 기후위기 인식이자 집단적 대응 역량이다. 기후비상사태를 해결하는 생태학적 대응 능력은 코로나19 대응처럼 국가 차원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 지구촌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를 휘어잡고 지구촌 규모의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 역량은 한참 못 미친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질병관리본부처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국제적 협력기구를 주도하고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기후관리 사령부를 만들어 인류의 집단 지혜를 창조적으로 발휘하고 전지구적으로 실천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구촌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결국 코로나19의 반면교사 기능은 인류의 생태학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어도 인류가 생태주의 체제로 가지 않으면 코로나19의 3차대전은 끝나도 끝나지 않는다. 지구촌의 여러 반면교사들이 인류의 생태학적 혁신을 촉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38) 슬라보예 지젝, 「우리 모두는 코로나 호에 함께 타고 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139호, 2020년 4월호, 3쪽.



**2020**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다문화인문학 콜로키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다문화인문학

02

## 현대문명의 위기와 새로운 삶을 위한 성찰

김 영

인하대 명예교수



# 현대문명의 위기와 새로운 삶을 위한 성찰

김 영(인하대 명예교수)

## 1. 이끄는 말

인간의 탐욕이 초래한 생태적 위기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인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재앙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지역봉쇄나 통행제한 없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K-방역'으로 불릴 만큼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에 이어 미국, 브라질, 러시아는 아직도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2주 전에 타계한 김종철 선생은 《녹색평론》 2020년 5-6월호(통권172)의 권두언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자본주의의 폭주, 과잉 산업발전과 소비주의의 소산이라고 진단하고, 이제 일체의 생태계 파괴행위를 통제하고, 얼마 남지 않은 삼림과 야생지 보호를 위해 사회 모든 부문의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1)</sup>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 약탈적 자본주의 문명의 근본적 성찰과 문명의 대전환을 위한 구상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소고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인류가 저질러온 반자연적 일상적 삶의 행태, 과잉생산과 무절제한 소비,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자동차와 비행기 운행의 폭증, 곤충과 미생물 서식지인 숲과 생태계에 대한 일방적 약탈, 극단적 개인주의와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 등 기존의 문명과 생활관습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발제자가 공부하고 있는 한문고전과 읽은 책들 속에 담긴 지혜의 일부를 현재적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자료로 삼아볼까 한다.

## 2. 병든 것과 가난한 것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문명을 구상하고,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의 접근과 논의가 필요할 터이지만, 인문학과 동양고전을 공부해온 발제자로서는 아는 게 옛 선현들의 글과 지혜 밖에 없어 그것을 조금 소개하려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자(莊子)》를 읽다 보니 <서무귀(徐无鬼)>가 눈에 띄었다.

서무귀(徐无鬼)가 위(魏)나라 무후(武侯)를 만났을 때 무후가 말했다.

“선생께서 산 속에 살면서 도토리야 밤을 주워 먹고 파와 부추를 싫도록 들면서 오랫동안 나를 찾아오지 않아 지금 매우 늙어버린 것 같소. 그래 고기와 술맛을 보러 오셨군요. 아무튼 그대가 온 것은 과인의 나라에는 큰 복이 아닐 수 없소.”

서무귀가 말했다.

“저는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태어나 아직 한 번도 임금님의 호사스런 술과 고기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온 것은 임금님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1) 김종철, <코로나 환란 공생의 윤리>, 녹색평론 2020년 5-6월호, 5~7면 참조.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무슨 소리요. 어떻게 그대가 나를 위로한단 말이오?”

“임금님의 정신과 몸을 위로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천지자연이 만물을 기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잘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못하지 않습니다. 임금께서 홀로 나라의 주인 행세하면서 나라의 백성을 괴롭히고, 귀와 눈과 코와 입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허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무릇 참된 정신이란 남과 화합하기를 좋아하고 간사한 것을 싫어합니다. 간사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병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드리려는 것입니다.”<sup>2)</sup>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 호사스럽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생활을 추구하던 무후가 서무귀 역시 고기와 술맛을 보러 자기를 찾아왔으리라 짐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산 속에 살며 도토리 와 밤을 주어먹는 가난한 생활을 하던 서무귀는 오히려 권력과 물욕에 찌든 임금을 위로하고 있다. 평등안(平等眼)을 가지고 도(道)를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혼자 나라의 주인 행세하면서 나라의 백성을 괴롭히고, 귀와 눈과 코와 입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임금이 불쌍해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탐욕의 병을 앓고 있는 왕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장자는 이 우언을 통해 권력과 물욕에 사로잡힌 인간을 오히려 불쌍하게 형상화하고 인간들의 세속적인 가치를 여지없이 전복시키면서, 바람직한 삶의 길을 묻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권력과 돈이 없는 가난을 위나라 무후처럼 병으로 여긴다. 그러나 가난이 죄이고 병이거니만 한 것인가.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고 아파도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돈도 없는 절대적 가난은 큰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들의 탈법과 상속 분쟁, 몰상식한 갑질과 반도덕적 행태를 보면,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훨씬 도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돈과 권력은 도와 거리가 멀다. 돈과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도(道)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즐긴다. 공자(孔子)는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돈이 있으면서도 예의범절을 지키기를 좋아하는(貧而樂, 富而好禮)” 경지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고, 맹자(孟子)는 “부귀하더라도 너무 지나치지 않고, 가난하더라도 뜻을 바꾸지 않을 것(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을 사람의 도리라고 여겼다. 조선후기 실학파문인 박지원(朴趾源)의 <허생전>에도 “재물 때문에 얼굴에 기쁨끼가 도는 것은 장사치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만 냥이 어찌 도를 살찌울 수 있겠는가(以財粹面, 君輩事耳. 萬金何肥於道哉)”라는 대목도 있다.

이렇게 도를 추구하면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전통은 욕망이 과잉인 우리 시대에 새로운 의미로 조명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 아닐까. 그래서 공자는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不患寡, 患不均)”고 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꾼다면 선현들이나 오늘의 현자처럼 지금부터라도 검소와 절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 3. 어울려 사는 세상

노자(老子)가 사람은 땅을,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도를 의지하고 본받는다(人法地, 地法天, 天法道)<sup>3)</sup>고 하였듯이 천하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뒷날한 스님은

2) 《장자》 잡편, <서무귀>

이렇게 말한다.

한 장의 종이는 종이 아닌 요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마음, 대지, 나무꾼, 구름, 햇살이 그 안에 들어 있다. 만일 그대가 종이 아닌 요소를 그 근원으로 되돌려 버린다면, 종이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물이 있을 수 없다. 물이 없다면 나무들이 자랄 수 없다. 나무들이 없다면 그대는 종이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종이의 존재는 구름의 존재에 달려 있다. 종지와 구름은 매우 가까운 관계이다.<sup>4)</sup>

사실 그렇다. 천하 만물이 서로 의지하고 있으며(Interbing), 서로 관계를 맺으며 어울려 존재한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한 인간이 되는 것도 사회화과정을 통해서이며, 사회적 유대가 해체되면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는 나 이외의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지식은 선생님과 책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나의 건강은 농부들이 땀 흘려 경작한 곡식으로부터 온 것이며, 나의 집은 목수가 지어 준 것이고, 나의 직업은 사회가 준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나에게서 나 이외의 요소를 제거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의 평화순례자 사티쉬 쿠마르가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씨앗은 땅을 섬기고 땅은 씨앗을 섬기며, 나무는 땅에 그 잎을 떨구고, 땅은 나무에 영양분을 주듯이, 우리 인간들도 서로를 섬기고 관계를 맺으며 자기를 실현하는 것인지 모른다.<sup>5)</sup>

우리 인간은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는 집, 학교, 직장 어디에서나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이러한 만남을 통해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법정 스님이 말했듯이 모든 만남은 생애의 단 한 번의 인연이고 모든 순간은 생애의 단 한 번의 시간으로 매우 중요하며, 훌륭한 사람과의 만남은 더욱 소중하다고 할 것이다.

어진 이를 가까이 하면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자를 벗어나면 재앙이 닥친다. 그것은 마치 종이가 향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향내가 나고, 새끼줄이 생선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어진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향기를 쏘이며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이 지혜를 일깨우며 선을 쌓아 자신도 모르게 선한 사람이 된다.<sup>6)</sup>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이웃을 만나고 그들과 잘 지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의 큰 행복이고, 그러한 삶은 성공적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과 잘 지내는 비결은 무엇일까. 선현들은 한결같이 남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갖고,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처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자(孔子)는 일찍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己所不欲, 勿施於人)”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맹자(孟子)는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은 모름지기 민중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민중의 걱정을 함께 근심하는 “민중과 더불어 즐거워하기(與民同樂)”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영복 선생도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자기 몸가짐은 서릿발처럼(待人春風, 持己秋霜)”을 자주 언급하였다.

3) 노자, 《도덕경》 25장.

4) 틱낫한, 《평화로움》(열림원, 2002) 94~6면.

5) 사티쉬 쿠마르,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달팽이, 2004) 26면.

6) 법정, 《인연이야기》(문학의 숲, 2009) 113면.

#### 4.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 삶

인간의 비극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가 깨진 데서 비롯되었다. 옛날 선현들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천지의 화평한 기운이 담겨있다고 믿었고, 인간과 만물이 다 천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진장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연이 존재한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법문한다.

이 세상은 인간만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만물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장입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와 균형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없다면 인간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곁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우주적인 조화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울려 함께 살아갑니다.<sup>7)</sup>

그러나 산업화 이래 이러한 만물이 다 하나라는 만물일류(萬物一類)의 사상은 인간중심의 개발논리와 발전욕망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대로 궁극적인 존재인 자연은 오직 인간의 이용과 탐욕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인류는 산림자원의 훼손과 사막화 현상, 에너지 고갈과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남북극 빙하의 해빙과 해수면의 상승, 지하수의 고갈과 공기의 오염, 만성적 가뭄과 비정상적인 기상현상 등과 같은 생태학적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는 이런 환경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벌들은 이 꽃 저 꽃으로 다니면서 꿀을 조금씩 모으면서 꽃을 해치지 않고,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데 비해, 우리 인간은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제할 줄 모르고 무모한 개발과 지나친 낭비를 하느라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박지원과 함께 조선후기 북학파를 이끈 홍대용(洪大容)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입장에서 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물이 천하지만, 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할 것이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삶과 물이 똑같다.

(以人視物, 人貴而物賤. 以物視人, 物貴而人賤. 自天而視之, 人與物均也.)<sup>8)</sup>

#### 5. 공생의 삶을 위한 지혜

마하트마 간디의 이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도의 영적 지도자 비노바 바베는 지옥과 극락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재미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지옥과 극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먼저 그 남자는 지옥을 보러 갔다. 그곳은 제법 괜찮아 보였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숙소에 살았다. 저녁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모두 방에서 나왔다. 모두 팔과 다리가 길고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들은 긴 테이블의 양쪽에 앉았다. 배가 몹시 고파 보였다. 밥과 빵과 채소가 먹음직스럽게 나왔다. 그들은 음식을 먹으려고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으려고 했지만 팔이 길어서 먹을 수가

7) 법정, 《일기일회》(문학의 숲, 2009) 69면.

8) 홍대용, 《담헌서》

없었다. 음식이 어깨 뒤로 떨어지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은 전부 바닥에 있었다. 지옥에 간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그 다음에 남자가 극락에 갔다. 그곳은 지옥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길게 방들이 늘어서 있는 곳에 살고 있었다. 남자는 방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잠시 후 식사종이 울렸다. 긴 필과 긴 다리에 키가 큰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로 나와 긴 식탁 양쪽에 앉았다. 음식은 밥과 빵과 채소로 지옥과 똑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입에 넣기 보다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입에 넣어주었다. 서로를 먹여주니까 낭비할 것도 없고, 배가 고플 이유도 없었다. 극락에 간 남자는 매우 놀랐다.<sup>9)</sup>

이 이야기는 자기 욕심만을 부리는 곳이 지옥이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곳이 극락임을 우의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자기중심주의는 결국 자기까지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남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공생공락(共生共樂)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과 잘 어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생공락의 삶을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선현들은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낮추며 먼저 남을 배려하고, 자기의 공을 드러내지 않고 티내지 않는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인간 중심주의를 버리고 만물을 같이 바라보는 평등안을 가지고 욕심을 비우고 겸손한 삶을 선택할 것을 권면한 것이다.

김종철 선생은 인류에게 닥친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은 확진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백신을 개발해야 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생의 길로 방향을 잡으면서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는 길 밖에 없다고 하면서, 생의 마지막이 된 <코로나 환란 공생의 윤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첫째 조건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과의 평화로운 공생의 삶이다. 그리고 공생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은 단순 소박한 형태의 삶을 적극 껴안으려는 의지이다.

내 목소리부터 낮춰야 새들의 노래도, 벌레들의 소리도 들린다. 그래야만 풀들의 웃음과 울음도 들리고, 세상이 진실로 풍요로워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sup>10)</sup>

## 6. 맺는 말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까 하여 프랑스의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시정 플랜을 소개하고, 이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나희덕 시인의 시 <산속에서>를 낭송하는 것으로 제 발제를 마친다.

이달고 시장은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의와 이콜로지를 모든 정

9) 사티쉬 쿠마르,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달팽이, 2004) 119~120면에서 재인용.

10) 김종철, 위의 글 8면. 김종철, 《땅의 옹호》(녹색평론사, 2008) 243면도 참조.

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하면서, 재선이 되면 향후 6년간의 시정 플랜 ‘파리를 위한 선언(Le manifeste pour Paris)’를 발표했는데, 중요한 것을 들어본다.<sup>11)</sup>

- 1) 파리 전역 차량 운행속도 30km/h 제한, 자전거 사용 유도
- 2) 마천루 6개의 건설 프로젝트 백지화, 대신 제3숲의 조성
- 3) 주차장 면적 절반 축소, 도시 전체의 공원화
- 4) 생태기후적 건축기준 시행(녹색공간 조성 의무 부과)
- 5) 에너지 과다소비 디지털 광고판 퇴출
- 6) 공유숙박플랫폼인 Airbnb를 사들여 저렴한 월세 임대주택으로 활용
- 7) 기후 위기에 대비해 파리시민의 식량주권 확보(도심 및 근교농업 이용)
- 8) 새로운 연대의 창조를 위해 ‘연대 센터’설치

## <산속에서>

나희덕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 《그 말이 있을 물들였다》(창비시선125,1994) 73면

---

11) 목수정 페이스북, 2020.6.19.일자 참조.

**2020**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다문화인문학 콜로키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다문화인문학

03

## 언택트 시대, 나는 누구와 컨택할 것인가?

박혜영

인하대 교수



# 코로나 이후를 생각한다

언택트시대에 우리는 누구와 접촉할 것인가?

박혜영(인하대 교수)

“역병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비춰주는 일종의 거울이며,  
환경(인위적인 환경과 자연적인 환경)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한다.”

- Frank Snowden(의료사학자, 예일대 명예교수)

### 아테네 역병(BC 430년~428, 427~426)

- 역병은 개인적인 질병에서 시작하지만 감염으로 인해 사회적 특성 지님
  - 죽음에 대한 공포
  - 기존의 관념과 사회체제의 해체 초래
  - > 개인과 사회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인지 성찰 필요
- 투키디데스(Thuchides)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고대 아테네의 비극적 재난 언급
  - 스파르타 상대의 전쟁 2년차에 발생
  - 아테네 3명 중 1명 사망
  - 대규모의 병력 상실, 페리클레스의 사망(BC 429)

- 그들이 아트케에 머무르고 며칠이 되지 않아 아테네인들 사이에 처음으로 역병(疫病)이 돌기 시작했다. 전에도 렘노스 등지에 역병이 돌았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이토록 역병이 창궐해 인명 손실이 크게 났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다. 처음에는 무슨 병인지 몰라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할 수 없었다. 환자와 접촉이 잦으니 실제로 의사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 인간의 그 밖의 기술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 신전에 가서 탄원을 해도, 신탁에 물어도, 그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해도 소용없기는 매일반이었다. 마침내 사람들은 재난에 패배하여 그런 짓도 포기하고 말았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제2권 47장, 안재원 번역)

Michiel Sweerts, <Plague in An Ancient City>



신들에 대한 두려움도 인간의 법도 효력이 없었다. 신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하자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자 사람들은 신을 경배하든 경배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재판까지 가서 처벌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죽음이 집행되기 전에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즐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제2권 53장)

## 아테네 역병의 후유증

- 종교에 대한 믿음 붕괴
-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 쾌락 추구
- 법에 대한 경외심
- 자유, 관용, 명예(티메, time)를 존중하는 정신 붕괴
- > 아테네 민주주의에 위협
- >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이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pleonexia)
- > 시칠리아 원정- 실패

## 역병 후유증의 치료법 – 극장의 발달

- 감정의 정화 장치로서의 희/비극 공연
- 문학, 예술의 사회적 기능
- 욕망을 가라앉히는 목적과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성찰
- 아테네 시민 교육의 기능

ex) 소포클래스의 <오이디푸스 왕>:

- 역병 발발 2년 뒤인 BC 429-425에 상연됨
- 테베의 역병 / 오이디푸스는 테베에서 아테네로 감
- 통치자로서의 성실성, 책임감, 진실성, 실천력의 중요성



### Thomas Malthus(1766-1834)

- 기근은 자연의 가장 무시무시한 최후의 보루이다. 인구의 힘은 인간에게 필요한 생계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의 힘보다 우월해서 그 결과 이런 저런 모습으로 조기사망이 (먼저) 찾아온다. (다음으로) 인류가 저지르는 악행은 인구를 줄일 능동적이고도 유능한 사제이자 파멸이라는 막강한 군대의 전령으로 때때로 알아서 끔찍한 과업을 완수한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절멸을 향한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차림새의 계절병이나 유행병, 역병이나 전염병이 전진하여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을 휩쓸어버린다. 이 정도의 성공으로도 충분치 않으면 기근이라는 피할 길 없는 거인이 뒤에서부터 걸어와 강력한 일격을 내리쳐 인구를 식량에 맞춰 평평하게 만들어버린다.

- 사람들이 모두 자연의 생산물을 놓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자기 몫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사회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목도해 왔다. 누군가가 결핍으로 고통 받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이들이 바로 인생의 거대한 로또 판에서 짱을 뽑은 불운한 사람들이다.
- 만약 남자들이 자기 힘으로 식구를 건사할 가능성을 거의 갖지 못한 채 교구의 생계지원에 대한 전망으로 혼인을 하게 된다면 이들은 옳지 않게도 본인과 자식들에게 불행과 의존성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들에게도 상해를 끼치려고 하는 셈이 된다. 식구를 건사할 능력도 없이 결혼을 하려는 노동자는 어떤 측면에서는 동료인 다른 노동자들에게 적대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코로나19와 그 이후

- 지구화 시대의 최초의 대규모 역병
  - 환경파괴, 무한한 경제성장의 신화, 거대도시, 고속 연결망
  - 범지구적인 불평등
- 코로나19의 대책: 거리두기
  - > 개인관계, 사회관계, 국가관계에 영향 - 자가격리와 국경폐쇄
- 개인관계:
- 사회관계:

**2020**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다문화인문학 콜로키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다문화인문학

04

## 위험사회의 생명 정치와

## 시의 공동체

나희덕

시인, 서울과기대 교수





# 위험사회의 생명정치와 시의 공동체

나희덕 (시인, 서울과기대 교수)

끝나지 않은 솔루세(Chthulucene)는 미친 정원사처럼 인류세의 쓰레기, 자본세의 박멸 주의, 그리고 부스러기와 찢어진 조각들과 퇴적물들을 그려모아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가능한 과거들과 현재들과 그리고 미래들을 위해 훨씬 뜨거운 퇴비더미를 만들어야 한다.  
-도나 해러웨이

## 1. 지구는 불타오르며 녹아내리고 있다

2016년 『사이언스』(*Science*)에는 얼 엘리스(Erle Ellis)를 비롯해 이십여명이 공동집필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구진은 그린란드 빙하 지역의 퇴적물 단면을 시각화하고 그 성분을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이끼 등 유기 조적물이 빙하 위를 덮고 그 아래 흙, 유기물과 뒤섞인 플라스틱 찌꺼기, 콘크리트 잔해, 혼합시멘트, 핵물질, 살충제, 금속 성분, 바다로 유입된 비료 반응성 질소(N<sub>2</sub>), 온실가스 농축 효과의 부산물 등”<sup>1)</sup>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구온난화로 일어난 이 지질층의 변화는 인류세라는 담론의 증거물이자 기후위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만한 것이다. ‘인류세’(Anthropocene)는 현재의 ‘홀로세’(Holocene)를 잇는 지질시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인류가 지구를 공멸시킬 주범이라는 위기의식을 담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먼저 이 글의 제목에 ‘인류세’ 대신 ‘자본세’를 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본세’(Capitalocene)라는 용어는 생태맑스주의자인 제이슨 무어(Jason Moore)나 안드레아스 말름(Andreas Malm) 등이 인류세 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인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도 인류세 개념으로는 당면한 문명적 위기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극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류세라는 말에는 지구를 파괴한 것도 인간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주체 역시 인간이라는 인간중심주의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인류세 담론이 지구의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는 대책들도 기존의 시스템 이론으로부터 크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위기관리라는 명분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자본의 논리에 의해 개량화되거나 관료화될 위험도 적지 않다.<sup>2)</sup> 그런 데다 인류라는 막연하고 보편적인 가해자를 상정함으로써 어떤 경제적 계층이나 정치적 입장과도 대립하지 않으며, 자본가들의 책임을 은폐하고 모든 사람의 책임인양 문제를 희석한다.<sup>3)</sup>

1) 이광석 「인류세 논의를 둘러싼 쟁점과 테크노: 생태학적 전망」, 『문화과학』 2019년 봄호 28면.

2) 클라이브 해밀턴은 『인류세』(정서진 옮김, 이상북스 2018)에서 지구 시스템 과학의 입장에서 에코모더니즘, 포스트휴머니즘, 신유물론, 사회민주주의 등을 차례로 비판하며 새로운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인류세를 극복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과 새로운 윤리를 막연하게 강조할 뿐, 그것이 어떤 장치나 방법을 통해 가능한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인류세의 위협에 대한 유일한 대응방식은 집단적인 방식, 즉 정치를 통하는 것”(249면)이라는 발언처럼, 정치권력이나 주류세력에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현상 유지에 기여할 공간이 커 보인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호주에서는 산불이 계속되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산불로 벌써 10억마리가 넘는 야생동물이 폐사되었고, 수많은 생명체가 멸종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아마존 화재나 호주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2013년부터 장기집권하고 있는 우파 정당(자유국민연합)과 보수 미디어들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며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왔다. 줄곧 석탄 수출국 1위를 지켜온 호주는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삼림채벌을 용인해주었고, 대화재는 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가 지금 같은 속도로 심각해질 경우 2100년이면 해수면이 1미터 이상 높아지고 해안가에 살고 있는 호주 국민의 대다수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한다.<sup>4)</sup>

이런 사정은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근대화에 토대를 둔 이 위험사회는 산업화가 지구적으로 전개되면서 체계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고, “기술적 선택의 능력이 커짐에 따라 그 결과의 계산 불가능성도 커”<sup>5)</sup>졌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을 생각해보라. 먼 나라의 산불이 아니라 언제든 나와 가족이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에 온 세계가 사로잡혀 있다. 오늘날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은 무관할 수 없고 국지적 양상을 띠지도 않는다. 글로벌 자본주의체제가 지속되는 한, 화석연료에 의존한 성장사회를 멈추지 않는 한, 부유한 계층이 기득권과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 한, 환경파괴와 노동착취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인류세’ 논의를 주도해온 과학자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지구의 급박한 위기상황을 “연료가 바닥난 비행기, 구멍이 난 배, 불타고 있는 집”<sup>6)</sup>에 비유했다. 이 총체적 재난은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sup>7)</sup>이라는 울리히 벡(Ulrich Beck)의 말처럼, 특정한 나라나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책임과 영향은 결코 공평하지 않으며,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다. “위험분배의 역사는 부와 마찬가지로 위험이 계급유형에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방향은 서로 반대다.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sup>8)</sup> 생태문제가 정치체제나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생명정치’ 또는 ‘정치생태(학)’라는 말이 시대적 키워드로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91년에 창간된 이래 생태 사상과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녹색평론』의 글들을 일별해보면 생태적 전환을 모색하는 범위나 점점, 문제의식 등이 계속 확대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철의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녹색평론사 2019)에서도 에콜로지가 농업,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민권력 등의 문제와 전방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아무리 순환적 삶의 질서의 회복과 흙의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회로 방향전환을 하자면, 우리의 집단적 삶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 즉 ‘정치’가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찍이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전 대통령이 “지금 인류사회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환경위기가 아니라 정치의 위기이다”라고 했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7~8면)

십대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2019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3) 이 글의 제사(題辭)가 포함된 *Staying with the trouble* (Duke University Press Books 2016)의 번역 및 설명은 최유미의 ‘도나 해러웨이, 곤란함과 함께하기’ 온라인강의(아트앤스터디) 자료를 참조했다.

4) 막심 량시앵 「호주에서의 지옥의 한 철」,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20년 2월호 참조.

5) 울리히 벡 『위험사회』, 홍성태 옮김, 새물결 1997, 57면.

6) 브뤼노 라투르·폴린 줄리에 대담 「지층과 자연: 왜 인류세(Anthropocene)인가?」, 『오쿨로』 7호, 2018, 86면 참조.

7) 울리히 벡, 앞의 책 77면.

8) 같은 책 75면.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지도자들을 향해 “당신들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꿈을 저당 잡힌 채 미래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다음 세대들의 항변 앞에서 시를 쓰는 일이 과연 튼베리의 호소만큼 강렬한 울림과 호소력을 지닐 수 있을까 되문게 된다. 전지구적 생태위기와 자본주의의 말기적 증상 앞에서 시인은 어떤 공포와 불안과 슬픔과 분노와 우울에 갇혀 있는가. 그 정동(情動)은 시인들의 몸-언어를 통해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 글은 그런 질문에서 시작해 자본제를 살아가는 시인들의 몸이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한국시는 지배적 감각체계를 바꾸고 새로운 윤리를 모색하는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다. 특히 생태정치가 세계의 위기와 삶의 고통을 발화하는 공통지점으로 등장하고, 다양한 정동의 양태와 언술방식으로 분화한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지만, 이 글에서는 백무산, 허수경, 김혜순의 최근 시를 중심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이 시인들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구조 속에서는 다른 경향을 지닌 것 같지만, 생명과 죽음, 노동과 계급, 문명과 자본주의, 전쟁과 폭력 등에 대한 지속적 탐구와 시적 실천을 해왔다는 점에서 친연성을 지닌다. ‘자본제’의 디스토피아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그들의 몸은 언어라는 가장 무력한,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맞서 싸우고 있다. 이 싸움이 주제 중심의 증언과 선언이든, 타자 지향의 질문과 대화이든, 타자-되기의 연행과 제의이든, 그 모두를 ‘저항’<sup>9)</sup>이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내게는 없다.

## 2. 나는 그 폐허를 원형대로 건져내야만 한다

백무산의 시는 일종의 폐허의식에서 출발한다. 『패닉』(『폐허를 인양하다』, 창비 2015)에서 ‘나’는 한밤중 산길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만져질 듯한 별들이 패닉처럼/하얗게 쏟아지는 우주//그 풍경이 내게 스며들자/나는 드러난다/내가 폐허라는 사실이”. 자연이나 우주의 풍경이 폐허를 인식하게 하는 거울이 되어준 셈이다. 그 순간 ‘나’는 다짐한다, “그 폐허를 원형대로 건져내야만 한다”고. 마치 인류세의 지질층을 보여주려고 그린란드 빙하 지역의 퇴적물을 탐사한 과학자들처럼, 시인은 패닉에 빠진 세계의 폐허를 언어로 인양해내려고 한다. 그러나 폐허를 인양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양』에서처럼 “가라앉은 것은 건져올리지 못한다 그것은 항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캄캄한 수심 아래 무거운 정적 속으로 배는 멈추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배’가 위험을 적재하고 어둠 속을 항해하는 현대문명의 상징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폐허를 인양하다』가 2015년에 출간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 ‘배’는 구체적으로 ‘세월호’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2009년 용산참사, 2014년 세월호참사, 2018년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폭력과 무책임에 의해 일어나고 방치된 사회적 재난들은 ‘지금 여기’의 삶이 폐허임을 말해준다.

이성혁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들이 쓸 수도 없고 쓰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미학적 방식으로 ‘증언의 시학’을 채택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는 증언시의 특성으로 ‘사태의 전면화와 정치적 의미의 폭로’를 들고, “경악스러운 사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거나 충격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사태에 따르는 시인의 사유나 정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교가 필요”하지만, “그 꾸밈이나 기교는 심미화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을 더욱 잘 증언하기”<sup>10)</sup>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백무산의 시가 주로 증언과 선언의 언술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절박한 현실의 사태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 정치적 의미를 선명하게 부각하기 위해서일 것이다.<sup>10)</sup>

9) ‘저항’의 의미를 푸코와 아감벤의 생명정치 논의와 연관시킬 수도 있겠다. “푸코와 아감벤의 논의는 규범과 법의 규정에서 방향을 달리하지만 생명권력이 지배하는 체제 안에서 가능한 투쟁전략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공통적인 질문을 던진다. 생명권력에 통제·관리·배제되는 삶에서 ‘육체’는 가장 급진적인 저항의 전위이자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현 「생명정치와 디스토피아 문학」, 『어문론집』 73집, 2018, 242면.

10) 이성혁 「최근 한국시에 나타난 증언시의 시학: ‘사회적 재난’에 대한 한국시의 대응 양상들」, 『시적인 것과

사태의 핵심을 향해 직진해 들어가는 사유와 명료한 언어들은 그의 초기 시부터 줄곧 유지되어온 특성이지만, 현실인식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변화를 보여준다. 1980년대 나온 첫 시집 『만국의 노동자여』(청사 1988)에서 “피가 도는 밥을 먹으리라/펄펄 살아 튀는 밥을 먹으리라/먹은 대로 깨끗이 목숨 위해 쓰이고/먹은 대로 깨끗이 힘이 되는 밥”(「노동의 밥」)이라고 했던 시인은 더이상 노동의 밥이 깨끗하지도 살아 있지도 않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는 한 대담<sup>11)</sup>에서 “현대 노동은 결코 신성하거나 인간적이지 않”으며 그 자체가 반생태적이고 반인간적인 노동윤리에 의해 가치화된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소비자본주의에서는 소비도 노동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거나 “미래의 노동은 노동을 극복하는 노동이어야 할 것”이라는 대목에서 노동에 대한 그의 성찰이 계급적 당파성을 넘어 생태적 사유를 통해 한결 풍부해졌음을 알 수 있다.

몸이여  
 참 미안하다  
 나를 먹이려고 땀과 아픔을 바치고  
 굴욕과 죄도 달게 삼켰지 목구멍뿐 아니라  
 사랑도 변변찮아 네 뜨거운 출구도 늘 쓸쓸하게 두었지  
 그래도 넌 비열한 곳에 가서 줄을 서려고 안달하진 않았지  
 그래서 비겁했고 오래 괴로웠던 내  
 몸이여  
 이제야 처음으로 지친  
 널 안아본다  
 -「몸이여」 부분

이 시가 실려 있는 『그 모든 가장자리』(창비 2012)에서 시인은 ‘노동’뿐 아니라 ‘몸’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이른다. ‘몸’을 청자로 삼은 이 시에서 ‘나’는 몸을 향해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지친 몸을 안아본다. 몸에 각인된 허기와 고단한 노동의 시절을 떠올리며 ‘나’는 더이상 제 몸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는다. 인용의 7행과 8행에서 ‘내’와 ‘몸’을 분행한 것도 몸의 독립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간만의 특별한 신체를 만든 건/노동의 역사 때문이라는 자연변증법보다” 이제 그가 더 신뢰하는 것은 “인간의 몸은 춤추는 동안 만들어진 신체”라는 사실이다.(「춤추는 인간」) 춤은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적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힘과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자기목적적 행위다. D.H. 로렌스가 「제대로 된 혁명」에서 “어쨌든 세계 노동자를 위한 혁명은 하지 마라/노동은 이제껏 우리가 너무 많이 해온 것이 아닌가?/우리 노동을 폐지하자, 우리 일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자!/일은 재미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일을 즐길 수 있다”<sup>12)</sup>라고 했듯이, 이 시에서도 몸은 노동을 위해 바쳐진 제물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살아 있는 감각과 행위의 터전으로 인식된다.

몸에 대한 발견과 각성은 다른 생명체에 대한 경이와 소통으로 확장된다. 「잃어버린 새」에서 ‘나’는 새를 잡아보며 새의 몸이 따뜻하다는 것에 놀란다. “두려움에 떠는 새의 심장을 만져”보기도 한다. “그 야성의 심장에 손이 닿자 나의 온몸이 경련처럼 떨린다”. 그 경이 속에서 ‘나’와 ‘새’는 오래, 깊이, 서로의 눈을 들여다본다. 자연과의 교감은 “내 몸 안에서 잃어버린 새를 찾을 수 있을까” 되물으며 야성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데, 지구라는 별의 시원을 더듬어가는 모습은 다음 시에도 잘 나타난다.

정치적인 것』, 예옥 2020, 179면.

11) 백무산·이기인 대담 「미래의 노동, 미래의 노동시」, 『열린시학』 2008년 봄호 37~47면 참조.

12) D. H. 로렌스 「제대로 된 혁명」, 『제대로 된 혁명』, 류점석 옮김, 아우라 2008.

잠에서 깨어나 창을 열면 이곳이 별이라는 생각  
 별거벗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눈을 뜨기를  
 그래서 나는 습관처럼 인간의 가장자리 사회의 가장자리  
 그 모든 가장자리를 그리워한다네  
 한 십만 년을 소급해서 살고 싶다네  
 -「그 모든 가장자리를」 부분

‘나’는 오히려 “우리 사는 곳에 태풍이 몰아치고 해일이 뒤집고/불덩이 화산이 솟고 사막과 빙하가 있어” “고맙다”고 한다. “내가 사는 곳이 별이란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게/지구의 가장자리가 얼어붙고 들끓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도심에 광야를 펼쳐놓은 비바람 천둥에도” 두근거린다. 여기서 시인이 그리워하고 꿈꾸는 ‘가장자리’란 “아직 별똥별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시공간이다.(같은 시) 하지만 그런 ‘인간의 바깥’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자본과 문명이 다 점령해버렸기 때문이다. “밖을 다 지우고 밖을 다 안으로 구겨넣고/밖이 증발하니 밖을 잃은 혁명은 구더기가 다 파먹었”(「인간의 바깥」)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계를 독점하고 당진해버린 세력들을 향해, 문명의 “저 눈알을 후벼파는 조명을” 향해, 시인은 단호한 명령문으로 말한다. “밖을 볼 수 없다 밖을 내버려두라 침묵을 내버려두라/고요를 내버려두라 흘러가는 것을 내버려두라”고.(같은 시) 마치 “살아 있는 모든 것에 시간을 부려놓고 수레처럼 빠져나가지만/시간의 주름 하나 잡히지 않는”(「물의 시간」) ‘물’의 몸처럼. 여기서 ‘내버려둔다는 것’은 단순한 방치나 정지가 아니다. 장자(莊子)가 말한 ‘무위(無爲)’처럼, 모든 것이 자연의 본성에 따라 흘러가도록 서로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자유’의 행위다. 문명의 맹목적인 질주와 탐욕을 내려놓고 고요와 침묵, 부재와 죽음의 자리를 세상 한켠에 남겨두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그런 생태적 전환 없이는 “내가 더 태어나야 할 곳”이자 “나의 잠재적인 신체”(「인간의 바깥」)로서의 ‘바깥’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가장자리』를 출간한 이후 세월호를 비롯해 대형참사가 이어지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한국사회는 더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 백무산은 이 참혹한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 “시가 무모해지더라도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시를 기회주의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폐허를 인양하다』 ‘시인의 말’)라고 썼다. 실제로 『폐허를 인양하다』에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메시지들이 다급하게 타전되고 있다. 이성혁의 표현처럼 “시인이 포착한 한국사회의 실재(The Real)”를 보여주는 이 시집 속의 ‘폐허’는 “인지자본주의 시대에서 세계의 상황뿐만 아니라 주체성의 상태 역시 지칭”<sup>13)</sup>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잠재적 장 속에 정치적인 것을 관통시키면서 강도 높은 정동을 촉발하고 우리의 행동 능력을 확장시”<sup>14)</sup>키기 위해 시인의 목소리는 증언과 선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3. 이름 없는 섬들에 살던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세월이에요

백무산의 시적 화자가 증언과 선언을 선호한다면, 허수경의 시적 화자는 질문과 대화를 선호한다. 허수경의 시는 일반화된 진리나 주장을 전달하기보다는 타자의 상황을 살피고, 안부를 묻고, 타자에 대한 기원과 고백을 개인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 의문형과 청유형 종결어미가 자주 등장하고, 편지 형식이나 대화체가 많은 것도 청자 중심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 청자는 눈앞에 있는 존재뿐 아니

13) 이성혁 「인지자본주의의 정동정치와 시의 정치적 위상」, 『외국문학연구』 71호, 2018, 158면.

14) 같은 글 165면.

라 아주 먼 시간과 공간에서 지금 여기로 호명된 존재들도 있다.

발신자: 고대의 여름

수신자: 현대의 겨울

안녕,

다시 가보지 못할 폐허여

경적을 울려대며 사방팔방에서 밀려 나오던 낡은 차들이여

소리소리 지르며 혁대를 팔던 소년들이여

양 의 피가 바닥에 흐르던 시장이여

초와 비누 대추야자와 강황 가루를 팔던 거리여

날아가던 총알에 아이의 심장이 거꾸러져도

아무도 그 심장을 거두지 않던 오후여

-허수경 「카프카 날씨 2」 부분(『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허수경은 두권의 시집을 낸 직후 독일로 건너가 고고학을 공부했고, 근동지방 발굴작업에도 참여했다. 그런데 오래된 지층을 탐사하며 문명의 기원을 밝히는 작업이 그에게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과 폭력을 목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고대의 여름’을 발신자로 삼아 ‘현대의 겨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이 시에서 현대는 “다시 가보지 못할 폐허”로 명명된다. 그런데 폐허의 이미지를 3인칭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2인칭으로 일일이 호명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각 시행이 ‘-여’라는 호격조사로 끝을 맺는 것은 시인이 객관적 관찰자가 아니라 정동적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음을 뜻한다. 평범한 거리와 시장의 모습이 펼쳐지던 2연에서 돌연 “날아가던 총알에 아이의 심장이 거꾸러진다. “아무도 그 심장을 거두지 않던 오후”를 향해 익명의 화자는 탄식한다. 전쟁의 참상은 3연에서 더 구체화되는데, “얼굴에 먼지와 피를 뒤집어쓰고/총 쏘기를 멈추지 않던 노인”과 “붉은 양귀비꽃이 뒤덮인 드넓은 들판”과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터지던 지뢰”와 “종으로 팔려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던 소녀들”이 차례로 호명된다. 이 호명의 대상에는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자연도 있다. 그것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나 위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적 주체인 ‘나’는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김소월의 「초혼(招魂)」처럼 그 돌아올 수 없는 타자들을 부르며 지극한 애도를 표하고 있다.

허수경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지만, 첫 시집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실천문학사 1988)부터 마지막 시집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문학과지성사 2016)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문명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첫 시집에 실린 ‘원폭수첩’과 ‘조선식 회상’ 연작은 일제강점기 피폭희생자의 육성을 전달하거나 전쟁과 분단에 얽힌 가족사를 들려주었다. 한국의 식민지 역사에서 촉발된 반전(反戰)의식은 독일에 체류하며 펴낸 시집들에서 코스모폴리탄적인 관점과 시야를 얻게 된다. 그 시들에서 시인의 시선이 머무는 대상은 주로 전쟁에 의해 희생되거나 고통받는 사회적·인종적·젠더적 약자들이다. 이런 타자들에 대한 섬세한 공감력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에게 닿아 있다.

이름 없는 섬들에 살던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세월이에요

이름 없는 것들이지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 죽여도 좋다고 말하던

어느 백인 장교의 명령 같지 않나요  
 이름 없는 세월을 나는 이렇게 정의해요  
 아님, 말 못하는 것들이라 영혼이 없다고 말하던  
 근대 입구의 세월 속에  
 당신, 아직도 울고 있나요?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부분(『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2011)

이 시는 모든 “이름 없는 것들”에 대한 애도뿐 아니라, 그들을 죽게 만든 폭력의 주체를 환기한 다. 이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을 가진 가해자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 죽여도 좋다고 말하던/어느 백인 장교”이자, 자연을 향해 “말 못하는 것들이라 영혼이 없다고 말하던” 근대적 주체들이다. ‘이름’과 ‘말’로 대변되는 근대적 이성의 이름으로 다른 인종이나 자연의 종들에게 폭력을 자행해온 주체들을 향해 시인은 말한다. “거대정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여, 말이 그대를 불러 평화하기를, 그리고 그 평화 앞에서 사람이라는 인종이 제 종(種)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살해할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라는 종은 ‘살기/살아남기’의 당위를 자연 앞에서 상실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인 세계 전망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나지막한 희망, 그 희망을 그대에게 보낸다.”<sup>15)</sup> 전쟁과 살육의 역사 속에서 시인이 건네는 나지막한 희망이란 무엇인가. 시집 전체에서 그것은 ‘어머니’ ‘달’ ‘물’ ‘동그라미’ 등 여성성의 이미지로 변주되고 있다.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저 푸른 마스크를 쓴 이는 누구의 어머니인가,  
 저 어머니들의 얼굴에 찍혀 있는 청동의 총,  
 저 아이를 끌고 가는 피곤한 얼굴의 사람들은

아이들의 어머니인가  
 원숭이 고기를 끓여 아이에게 주는 푸른 마스크의  
 어머니에게 제발 아이들의 안부 좀 전해주세요  
 아이들이 자라는 그 청동의 시간도, 그 뜨거운 군인이 될 시간도  
 -「물 좀 가져다주세요」 부분(『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청동의 시간’과 ‘감자의 시간’은 죽음과 생명이라는 대립구도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시인은 그 경계를 해체한다. “아이들이 자라는 그 청동의 시간”은 “차가운 시간 속 뜨겁게 자라는 군인들”의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땅속에서 감자는/아직 감자의 시간을” 살고 “땅속에서 땅사과가 아직도 열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시에 세번이나 반복되는 ‘아직’이라는 부사어에는 시인이 간신히 붙들고 있는 희망이 깃들여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어머니, “원숭이 고기를 끓여 아이에게 주는” 어머니가 쓴 ‘푸른 마스크’는 뜨거운 태양에 맞서 싸우는 생명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진술보다 이미지가 두드러진 허수경의 시에서 색채의 상징성은 중요한 요소다. 이해원은 허수경 시에 나타난 전쟁 표상을 분석하면서 “검은 군인” “검은 노래” “검은 비닐” 등에 나타난 ‘검은색’의 폭력성은 개성을 은폐함으로써 강화되며 “개인과 무관하게 행사되는 무지막지한 집단적 폭력의 가능성을 함축”<sup>16)</sup>한다고 보았다. 이 검은색과 대비되는 흰색, 푸른색, 연등빛 등은 생명의 색채로서 계열체를 이룬다. 선명한 색채의 대비는 “전쟁과 관련하여 선과 악, 약자와 강자, 삶과 죽음, 여성성과 남성성의 대립적 개념을 부각시키는 경향”<sup>17)</sup>을 대변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남성이지만, 여성은

15) 허수경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뒤표지 글, 문학과지성사 2005.

16) 이해원 「허수경 시에 나타난 전쟁 표상과 생명의식」, 『문학과환경』 2019년 18권 1호 145면.

그 피해를 감당하면서 일상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존재라는 인식이 여기에는 깔려 있다.

나는 눈먼 사제의 딸, 이렇게 죽인 소를 사지요, 잘 다져서 볶지요, 고춧가루 마늘에다 은밀한 산그늘에서 가지고 온 고사리를 넣고 끓이지요, 세계를 국솥에 두고 끓이지요 먼 나라에서 온 악기쟁이들을 불러다놓고 끓이지요, 햇빛에 달빛에 별빛에 바람 오는 자리들을 깊숙이 세계의 한켠에다 집어두지요,

—「흰 부엌에서 끓고 있던 붉은 국을 좀 보아요」 부분

‘나’는 대지모신(大地母神)처럼, 또는 “눈먼 사제의 딸”처럼, “흰 부엌”에서 “세계를 국솥에 두고 끓이”고 있다. “이 국 끓이는 여사제(女司祭)야말로 시인 허수경의 자화상”<sup>18)</sup>이라는 성민엽의 말은 첫 시집에서 “가난한 선술집의 주모”<sup>19)</sup>를 떠올리던 송기원의 말의 변주처럼 들리기도 한다. ‘시인의 말’에서 “이 시집에 묶인 시들을 전쟁생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한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에는 그 분명한 의도 때문인지 전쟁/평화, 남성성/여성성의 이분법적 구도가 다소 단순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시인은 단정적 진술을 피하고 시적 메시지를 의문문의 여운 속에 남겨 두거나 청자에 대한 대화적 태도를 잃지 않는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는 시인이 발굴지나 전쟁터에서 돌아와 다양한 타자들과 만나는 일상적 풍경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첨예한 인식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생태적 감각을 회복하면서 다층적이고 풍부해진다. 「푸른 들판에서 살고 있는 푸른 작은 벌레」에서 바지에 묻어온 벌레를 털어내며 ‘나’는 “벌레여 이 바지까지 온 네 삶은 외로웠나/이렇게 말하는 건 나, 중심적임을 안다네,”라며 인간중심주의적 태도를 반성한다. 그러나 시인은 이미 “벌레가 나를 벌레적으로 생각하며 푸르러지는 오후”에 도착해 있다.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관계를 잘 보여주는 「내 손을 잡아줄래요?」의 화자는 쥐도 인간도 아니다. “나와 쥐는 이제 기억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나’는 익명화된 존재로서 “내 손을 잡아줄래요?”라며 빈손을 건넨다. ‘쥐의 당신’과 ‘나의 당신’이 만나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는 것만이 세계와 불우와 슬픔을 건디는 방법이라는 듯이.

#### 4. 나에겐 노래로 씻고 가야 할 돼지가 있다

김혜순의 시에서는 주체의 목소리와 타자의 목소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겹쳐지거나 밀착된다. 화자가 타자에게 시적 주체성을 양도하거나 다른 존재가 되는 실존적 기투를 감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적 주체에게 고유한 얼굴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은 김혜순의 시를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독자가 전통 서정시의 단일한 자아 또는 화자의 목소리를 상정하고, 정서적 동일화나 잠언적 메시지를 기대하는 데서 생겨난 것인지 모른다. 그의 시를 읽는 방법은 요동치는 시의 몸속으로 들어가 함께 난장을 벌이며 그 언어적 카니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체와 타자가 한데 섞여 만들어내는 다성적 언술방식은 ‘여성적 글쓰기’<sup>20)</sup>라는 말로도 표현되어왔다.

17) 같은 글 152면.

18) 성민엽 「고고학적 상상력과 시」,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해설, 147면.

19) 송기원 「저주와 은총의 사랑」, 『슬픔만 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해설, 134면.

20) 김혜순은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문학동네 2002), 『여성, 시하다』(문학과지성사 2017), 『여자짐승아시아하기』(문학과지성사 2019) 등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시론을 꾸준히 펼쳐왔다.

시 속의 내가 말하지 않고 어머니가 말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의 영원한 불일치 속에 있는 화자가 말한다는 것이다. 타자와의 몸 섞임 없이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어머니가 말한다는 것이다. (...) 그러기에 어머니의 언어는 연기(演技)의 언어, 연희(演戲)의 언어다. 어머니는 고착된 자아가 내지르는 언어를 알지 못한다. 저 어두운 곳에서 포효하는 고립된 자아의 무서운 진리의 목소리를 알지 못한다.<sup>21)</sup>

여성시의 화자는 자아를 사유하는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단지 몸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감성적 주체, 행위자다. 그러나 시간도, 공간도 자유롭게 건너뛰는 신체 기반적 수행 주체다. 이쪽과 저쪽을 동시에 살아내는 주체 망각의 분열 주체다. 그러나 그 주체가 기르는 이미지 속에 공동체의 죽음과 생명을 운반하는 소명과 의지가 숨어서 숨 쉬고 있다.<sup>22)</sup>

시인의 말처럼 여성적 글쓰기란 ‘나’를 지우고 ‘내 속의 어머니’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언술방식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언어는 “연기(演技)의 언어, 연희(演戲)의 언어”다. 이때 시적 주체는 고착되거나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타자와 몸을 섞으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신체 기반적 수행 주체’이자 ‘주체 망각의 분열 주체’다. 또한 진리를 표방하는 ‘사유적 주체’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감성적 주체’다. 따라서 “공동체의 죽음과 생명을 운반하는 소명과 의지”가 표출되는 통로나 방식도 일반 서정시와는 다르다.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시쓰기가 반드시 ‘탈주체화’와 같은 무언가를 동반하며, 시인들이란 “끊임없이 미치광이가 될 위험과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는”<sup>23)</sup> 존재들이라고 했다. 김혜순의 시쓰기 역시 일종의 빙의 체험처럼 타자-되기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술적이고 제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23)</sup>

흠치지도 않았는데 죽어야 한다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어야 한다  
재판도 없이  
매질도 없이  
구덩이로 파묻혀 들어가야 한다

(...)  
나에겐 노래로 씻고 가야 할 돼지가 있다  
노래여 오늘 하루 12시간만 이 몸에 붙어 있어다오

시퍼런 장정처럼 튼튼한 돼지 떼가 구덩이 속으로 던져진다  
무덤 속에서 운다  
네 발도 아니고 두 발로 서서 운다  
머리에 흠을 쓰고 운다  
내가 못 견디는 건 아픈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무덤 속에서 복부에 옥수 찬다 가스도 찬다  
무덤 속에서 배가 터진다  
무덤 속에서 추한 찌개처럼 끓는다  
핏물이 무덤 밖으로 흐른다

21)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84~85면.

22) 『여성, 시하다』 35면.

23) 조르조 아감벤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옮김, 새물결 2012, 171면.

비오는 밤 비린 돼지 도깨비불이 번쩍번쩍한다  
 터진 창자가 무덤을 뚫고 봉분 위로 솟구친다  
 부활이다! 창자는 살아 있다! 뱀처럼 살아 있다!

피어라 돼지!  
 날아라 돼지!  
 -「피어라 돼지」 부분

『피어라 돼지』(문학과지성사 2016)의 1부 ‘돼지라서 괜찮아’는 열다섯편의 시로 이루어진 한편의 장시로도 볼 수 있다. 2011년 무렵 구제역의 악몽 속에서 300만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잔인하게 살처분되거나 생매장되었다. 시인은 그 희생된 돼지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들이 ‘되어’ 말한다. 아니, 그것은 언어 이전의 울음이고, 비명이고, 한숨이다. 아무 잘못도 없이 전염병의 위험인자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생명체들<sup>24)</sup>의 비명이 구덩이 속에서 썩어가는 창자처럼 낭자하게 들려온다. 돼지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공포와 수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시인은 말한다, “나에겐 노래로 찢고 가야 할 돼지가 있다”라고. 그리고 간절히 청한다, “노래여 오늘 하루 12시간만 이 몸에 붙어 있어다오”라고. 그러니까 이 시는 열두시간 동안 숨 가쁘게 진행되는 찢김굿이다. 이 노래와 제의는 무덤 속에서 썩어간 돼지들의 영혼을 진혼하고 부활시키는 데 바쳐진다. “피어라 돼지!/날아라 돼지!”는 그 원혼들을 깨우는 주문인 셈이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언어를 갖지 못한 다른 존재들에게 자신의 입을 빌려주는 자이다.

이 고통스러운 ‘돼지-되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문명 속에 처한 상황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돼지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박준상이 말한 것처럼 “적지 않은 근대 문인이 부르주아지에게 아부하기 위해 애지중지하면서 쓰다듬어왔던 문학적 주체성이라는 걸치레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위선 또는 허위”를 벗어던지는 행위이며,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유물론적’ 전망 위에—설사 시인이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는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일종의 ‘정치적’ 전망 위에 놓여 있다”<sup>25)</sup>라고 말할 수 있다. 시인은 “나는 돼지/노출증 환자 돼지//나는 내 오물을 나의 독자들에게 나눈다”(『요리의 순서』)라고 말함으로써 시란 고상한 이념이나 낭만적 환상을 주입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싸지른 온갖 ‘오물’을 공유하는 매개체임을 천명한다.

김혜순은 1980년대부터 한국 여성시의 전위로서 젠더적 글쓰기의 새로운 길을 열어온 시인이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그가 펴낸 시집들을 보면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력한 질문과 회의의 자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피어라 돼지』에서 돼지-되기를, 『날개 환상동』(문학과지성사 2019)에서 새-되기를 감행함으로써 남성/여성의 이분법뿐 아니라 인간/비인간의 경계마저 해체하고 있는 그의 시들을 과연 젠더적 관점만으로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sup>26)</sup>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질문에 대해 박슬기는 “이제 우리는 김혜순의 시에서 여성성 혹은 여성시라는 낙인을 떼어내야 한다. 그것이 단일자로서의 보편에 대항하는 모든 주변의 것들, 타자성의 시학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하더

24) 우리나라에서 과거 20년간 구제역으로 약 400만마리, 조류독감으로 약 9415만마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약 15만마리 등 대략 1억마리의 가축이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살처분되었다. 「‘돼지열병’ 살처분 불과 15만? 20년간 1억 가축 파묻었다」, 한국경제 2019.10.22.

25) 박준상 「문학의 미종말(未終末)」, 『현대유럽철학연구』 42호, 2019, 88면.

26) 양경연은 2000년대 시에서 ‘성차가 약화’되어가거나 ‘탈인간화’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다루면서 “젠더 프레임을 경유하여 최근 시를 읽는 일의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시적 주체가 젠더 규범을 허무는(undoing) 지점을 발생시킴으로써 기존의 ‘인간’ 범주를 의문에 부치는 시편들과,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삶의 존속과 생존을 위해 수행되는 개념으로 전환하여 입체적인 ‘나’를 구사함으로써 ‘삶다운 삶’을 추구하는 시편들”을 분석한다. 양경연 「최근 시에 나타난 젠더 ‘하기’(doing)와 ‘허물기’(undoing)에 대하여」, 『안녕을 묻는 방식』, 창비 2020, 93면.

라도 말이다. 여성시라고 부를 때, 그 담론은 여성을 주체화한다”<sup>27)</sup>라고 주장한다. ‘여성성(여성시)’이라 규정하는 순간 여성을 주체화할 위험이 있고, 그것은 은폐된 타자들에 대한 또다른 대상화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은 김혜순의 시뿐 아니라 여성성과 타자성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사유의 지점을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 5. 미친 정원사처럼 뜨거운 퇴비를 만들어야 한다

첫머리에 인용한 도나 해러웨이의 말로 돌아가보자. 그럼, 파국을 향해 치달는 위험사회 속에서 난민과도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인류세의 쓰레기, 자본세의 박멸주의, 그리고 부스러기와 찢어진 조각들과 퇴적물들을 그러모아” “뜨거운 퇴비더미”를 만드는 일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시인들처럼 몸적 주체로서 이 세계에서 버려지고 고통 받고 죽임당하는 존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증언과 선언/질문과 대화/연행와 제의 등)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세 시인이 공통적으로 ‘병들고 불구가 된 흙’에 주목하는 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녹색은 기적이다  
 부유하는 먼지와  
 불구가 된 흙과  
 폐기된 배설물과  
 추방된 독극물과  
 배제된 토사물을 먹고  
 허공 신전의 푸른 기둥을 올렸다  
 -백무산 「땅을 딛고 일어날 뿐」 부분(『그 모든 가장자리』)

에이디 2002년 팔월 새벽 여섯 시 삼으로 정방형으로 땅을 자른다, 비씨 2000년경 토기 파편들, 돼지뼈, 염소뼈가 나오고 진흙으로 만든 개가 나오고 바퀴가 나오고 드디어는 한 모퉁이만 남은 다진 바닥이 나온다 발굴은 중단되고 청소가 시작된다 (….) 일 미터를 지나왔는데 내가 파낸 세월은 한 오백 년, 내가 서 있는 곳은 비씨 2500년, 압둘라가 아침밥을 먹으러 간 사이 난, 참치 캔을 탄다, 누군가 이 참치 캔을 한 오백 년 뒤에 발굴하면 이 뒤엎긴 시간의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시간언덕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허수경 「시간언덕」 부분(『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오물은 오늘 밤 온몸으로 오물이 차오르는 걸 그냥 내버려두었다  
 수령의 오물들이 고고의 성을 무한하게 내질렀다

(….)

동물과 식물과 사물들과 친구들의 테두리가 다 터져버리다니  
 집을 땅속에 묻어야 하나 땅을 땅속에 묻어야 하나

눈을 떠도 감아도 수는 빛 환한 오물이

27) 박슬기 「김혜순이라는 거울, 살아 있는 언어들의 헬러원」, 『누보 바로크』, 민음사 2017, 83면.

보이지도 않는 방사능 같은 오물이  
 -김혜순 「오물이 자살했다」 부분(『피어라 돼지』)

백무산은 “부유하는 먼지와/불구가 된 흙과/폐기된 배설물과/추방된 독극물과/배제된 토사물”을 먹고도 나무들이 허공에 “푸른 기둥을 올”리는 것을 ‘기적’이라 부른다. 인류세의 토양이 오염되었다 라도 그는 자연에 남아 있는 생명력을 발견하고 녹색의 기적을 꿈꾼다. 허수경은 정방향으로 자른 한조각의 땅 속에서 ‘토기 파편들, 돼지똥, 염소똥, 바퀴, 곡식알’ 등을 발굴해낸다. 그리고 “참치 캔”을 따며 자신이 속한 인류세의 흔적이 후대에 어떻게 발굴될 것인지를 헤아린다. 김혜순은 “수령의 오물들”이 내지르는 비명을 들으며 문명의 찌꺼기인 “금속의 영혼” “수은 빛 환한 오물” “방사능 같은 오물”이 지천에 차오르는 걸 견디고 있다. 그러면서 “동물과 식물과 사물들과 친구들의 테두리가 다 터져버리”는 경험을 한다. 이렇게 시인들은 먼지와 흙과 배설물과 독극물과 토사물과 유물과 오물로 뜨거운 퇴비더미를 만들어낸다. 미친 정원사처럼.

해러웨이는 ‘인류세’의 대안적 용어로 ‘술루세’<sup>28)</sup>를 창안했다. 그가 보기에 지금 지구는 피난처도 없이 난민(인간이든 아니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전면적인 혁명이나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술루세에서 “필멸의 동물로서 잘 살고 잘 죽는 한 가지 방법은 피난처를 재구축하고, 부분적이며 강력한 생물학적-문화적-정치적-기술적 회복과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힘들에 합류하는 것”<sup>29)</sup>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자연/인공, 남성/여성, 인간/동물, 백인/흑인 등 다양한 이분법적 사고에 저항하면서 ‘친족 만들기’(making kin)를 제안했다. 그가 말하는 ‘친족’이란 조상이나 계보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탄생에 의한 연결이 없는 친척이나 탈가족화된 돌봄에 의해 형성된 집합적 개념이다. ‘아기가 아니라 친족을 만들라’라는 그의 슬로건은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이들에겐 다소 당혹스러운 주장이겠지만, 그는 친족을 만들고 혁신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단단한 바탕 위에 있다고 믿는다.<sup>30)</sup>

『곤란함과 함께하기』<sup>31)</sup>에서 해러웨이는 자본세의 파괴가 극심한 지구 곳곳에서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 공동체들을 ‘퇴비의 공동체’라고 불렀다. 그들은 기술이나 혁명 같은 유토피아적 구원을 추구하기보다는, 불완전하지만 타자를 향해 열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근대가 파괴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난처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실천이 필요하겠지만, 문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예술(기술)’을 열어가는 것도 그 일환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몸이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인간은 그 인드라마의 주인이 아니라 그물코에 불과하다는 것, 이런 생태적 전제들을 시인들은 잘 체득하고 있다. 따라서 만물과 ‘살’을 공유함으로써 그들과 함께하는 ‘시쓰기’는 일종의 ‘친족 만들기’ ‘퇴비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심보선의 말을 빌리면, “시란 시인의 고뇌에서 탄생하여 나아가는 수직적인 이행이 아니라, 하나의 몸에서 또 다른 몸으로 나아가는 평면적 확장”<sup>32)</sup>이다. 그 수평적 이행과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위해 모든 형태의 이분법과 위계를 부정하고 낯선 타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러한 저항과 창조는 생태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28) ‘술루세’(Chthulucene)는 땅 아래 숨어 있는 힘에 주목한 개념으로, 역동적으로 지속되는 공-지하적(sym-chthonic)인 힘과 다양한 지구 차원의 축수권력들이 모여 재구성하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리킨다. 거기에 얽혀 있는 집합적 존재들에는 인간 이상의 것, 인간 아닌 것, 비인간적인 것, 부식토로서의 인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도나 해러웨이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툴루세: 친족 만들기」, 김상민 옮김, 『문화과학』 2019년 봄호 168면 참조.

29) 같은 글 167~68면 참조.

30) 같은 글 169~72면 참조.

31) 각주 3과 같음.

32) 심보선 「‘천사-되기’에서 ‘무식한 시인-되기’로: 평론가, 시인, 문맹자의 문학적 정치들」, 『창작과비평』 2011년 여름호 268~69면.

**2020**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다문화인문학 콜로키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다문화인문학

05

## 감염 시대의 생태와 사회·문화적 함의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



# 감염 시대의 생태와 사회·문화적 함의

박인기(경인교대 명예교수)

## 1. 감염병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

### 1. 존재의 변이

사람들 사이를 매우 빠른 속도로 돌아서 가파르게 번져가는 것, 두 가지를 대라면 무엇을 대겠는가. ‘역병’과 ‘소문’이 그러하다고 본다. 역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괴질이고, 소문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 없이, 돌아다니는 그럴듯한 말이다. 이 둘은 ‘돌다’라는 동사와 호응하여 특유의 의미를 살려낸다. ‘역병이 돌다.’, ‘소문이 돌다.’라고 할 때,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역병이든 소문이든,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다. 두 번째는 일단 돌기 시작하면, 그 번져나가는 현상을 쉽사리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역병이 도는 것을 막지 못하면 우선 사람이 견잡을 수 없이 죽어 나간다. 소문이 도는 것을 막지 못하면 사회를 지탱하는 믿음이 사라진다. 그 소문이 나쁜 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나라가 어지럽고 권력은 허물어진다. ‘돌다’에는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가 이 말의 의미 주변을 감돈다.

돌면 선뜻 멈추기가 쉽지 않다. 이는 ‘돌다’라는 물리적 현상의 특징이다. 생리적 차원으로 오면 ‘돌다’라는 말은 ‘어지럽다’와 만난다. 계속 돌다 보면, 마침내 어지러워지는 현상, 이는 생리적인 현상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듯하다. ‘돌다’는 사회문화적 현상으로도 의미론적 함의를 가진다. 근원과 정체가 잡히지 않는 그 무엇이 계속 돌아다니는 사회는 불안의 사회다. 소문이든 전염병이든 멈추지 않고 돌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정신 차려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돌기만 하는 생각의 상태, 그렇듯 ‘고장이 난 생각의 사태’를 “돌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새삼 다시 음미된다.

\*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새로운 인식과 가치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 첫 번째가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된다는 문제이다. 감염의 전파와 확산 현상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것이 일상의 생태처럼 되는 데서 오는 존재 인식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떠돌아다니는 감염은 존재의 소멸(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야말로 실존에 대한 치명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대개 존재의 문제는 ‘자아’와 ‘타자’로 수렴된다 할 수 있을진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비대면과 비접촉의 행동 양식을 내재화하면서, ‘타자로서의 자아’를 더욱 절실하게 경험하며 산다. ‘나’라는 존재는 감염을 두려워하는 ‘자아’이면서, 동시에 나 또한 타자에게 그를 감염시킬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타자로부터 더욱 철저히 타자화되는 존재가 된다. ‘나’는 그를 감염시키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감염을 당할 수 있는 객체로서 이중의 위상을 가지고 존재한다. 이러한 존재 상관은 가족 사이에도 냉정하게 적용된다.

코로나 시대의 타자화 맥락에는 우리가 전통적 가치로 지녀 왔던 ‘인간적’이라는 말에 들어 있는 일체감, 진정성, 따뜻함, 우호감, 공감과 이입 등의 요소들로부터 물러설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구호로 내세우지만, 이는 심정적 차원을 넘어서기 어렵다. 여기에 향후 인문학의 새로운 과업이 놓여 있다고 하겠다.

‘un-contact’라는 말에 표상되는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말의 기의(記意,signifie)에서 이제는 저물리적 이격을 그냥 행동 규범으로만 볼 수는 없게 될 것이다.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친밀’의 의미론적 함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질될 것이다. 이는 존재와 존재 간을 잇는 관계의 심리학(또는 사회학)이 달라짐을 암시한다. 나는 ‘un-contact’라는 말을 들면서 자동 연상으로 인도 계급사회의 ‘불가촉민(不可觸民)’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은연중에 ‘경계(기피)해야 할 타자’로서 ‘나’라는 존재가 인식되고, 이는 이 시대인 일반에 내면화되는 것이다. 이는 비대면, 비접촉 해야 할 타자에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생태가 일상 삶의 조건으로 되어 간다는 데서 오는, 존재론적 불안이 일반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유한성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이전의 보편적 존재 불안과는 차원과 정도를 달리하는 불안이다.

코로나 사태는 전 지구적인 돌림병의 현상이다. 이 역병의 돌림과 함께 불명료한 전언들이 난무한다. 공포의 그림자로 소문(뉴스)의 횡행을 우리는 목도하였다. 소통의 변화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자아와 타자의 관계 양상에 대한 질적 변화는 소통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이것이 사회나 문화의 순환에 어떻게 의미 작용을 할지는 다양한 비평적 감식의 담론이 필요할 것이다.

## 2. 소통의 혼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과 가치의 문제를 제기한다. 코로나 사태에서 소통은 문제 현상으로도 다가오고, 동시에 문제해결의 통로로서도 모색될 수 있다. 소통의 혼돈을 옳고 그르고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소통 생태의 다가옴이라는 시각이 필요할 듯하다.

역병은 단순한 감염이 아니라, 집단으로 빠르게 전염되는 돌림병이다. 사람이 때로 죽어 나간다. 병도 시체도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고, 속수무책 방도가 없는 역병을 옛날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로 받아들였다. 이런 무서운 역병은 신의 저주이거나 악마가 인간의 세상을 유린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때에 인간의 마음에는 악마의 존재가 더욱 뚜렷하게 도드라졌다. 악마의 대리인으로 희생양으로 마녀를 만들어 처형하기도 했다. 정치 권력이 소통을 왜곡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런 현상은 겉으로는 없다. 그러나 겉모양새는 달라졌지만, 밑에 숨어 있는 기본 구조는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다.

소통의 왜곡을 불러오는 원천은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질곡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람들 사이에 전염되어 간다. 이 심리 전염의 프로세스가 소통의 진정성을 방해하는 것이다. 합리성과 그에 기반한 사유를 몰아낼 때, 공동체의 소통은 왜곡된다. 전술한 대로 더 주목할 것은 이를 다스리는 권력이 소통의 왜곡으로 이끌리는 유혹을 받기 쉽다는 점이다. 코로나 발생을 악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코로나 전파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왜곡시킨 정치 권력의 사례를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지구촌 전체의 펜데믹에서 소통의 윤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 국가 권력의 전체주의적 멘털리티를

‘역(疫)’은 ‘염병 역’자이다. 욕설 중에 널리 유포된 욕설이 ‘염병할 놈’이었다. 전염성이 강한 역병에 걸려 죽을 놈이라고 저주하는 욕이다. 역병 바이러스의 강한 전염 이치를 생각하면, 이 욕은 저주의 범위가 넓다. 상대는 물론이고, 상대가 속한 가정이나 동네까지도 모두 역병에 걸려 멀해 버리기를 바라는 아주 고약한 저주의 욕이라 할 수 있다. 역병의 풍경이 이리하다. 역병은 오늘날에도 맹위를 떨치고, 우리는 불안에 터널에 갇힌 나머지 이런 심리를 정당화하려는 소통 욕구를 가진다. 소통의 왜곡을 불러오는 당연하다.

소문도 감염의 일종이다. 우리는 어떤 소문이 돌면, 애써 귀를 내어놓고 그걸 들으려 하고[感], 그 소문의 내용에 물들게 된다[染]. 소문을 대하는 프로세스가 감염(感染)의 프로세스와 흡사하다. 더구나 들은 소문은 나도 모르게 또 누군가에게 빠르게 퍼트리게 되니, 소문도 역병 프로세스의 일종이

라 할 수 있다. 무서운 역병이야말로 병 자체보다 소문이 더 빠르게 번진다. 병보다 소문이 더 흉흉하고 무섭다. 인간은 먼저 공포에 지고, 다음에 역병에 무너진다. 코로나 사태와 동반된 가짜뉴스 현상은 가짜뉴스의 보편화를 예견하게 한다. 가짜뉴스는 코로나 이후의 사회 문화적 생태의 일부가 될지도 모른다.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노벨상 수상 작가인 알베르 카뮈(Albert Camus)가 1947년에 발표한 소설 <페스트>는 페스트 역병으로 고립된 알제리 북부의 어느 해안 도시의 사태를 그리고 있다. 이야기는 무서운 페스트 역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참상을 그리면서, 불안, 격리, 도피, 우울, 좌절, 공포 등의 심리적 정경을 묘사한다. 온갖 이기심과 허위의식이 발동한다. 정치인도 성직자도 언론인도 민낯의 모습을 드러내버린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스파이를 대하듯 의심의 마인드로 변해 간다. 상대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가 오래 계속될수록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더구나 이 역병의 언제 물러갈지 모르는 출구 없는 상태가 사람들을 소문에 매달리게 한다.

나의 오늘 삶이 감염인지 아닌지 불투명한 상태, 지인들이 갑자기 쓰러져 죽음으로 치달는 사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실존(exist)에 대한 가장 절절한 경험을 한다. 내가 나의 존재를 자각적으로 물으면서 살아가기로 질병이나 통증만큼 각성이 강한 것도 없다. 내 존재에 대한 확실함이 없을 때, 사람들은 예언에 매달린다. 실제로 카뮈의 소설 <페스트>를 보면, 온갖 예언들이 난무하고, 예언서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 글쟁이들을 동원하여 가짜 예언서를 급조하여 파는 출판사들도 나온다. 소통의 왜곡과 가짜뉴스의 절정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소문의 전염성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징기스칸이다. 그런 점에서 질병은 역사에 대한 비유의 기능을 한다. 질풍노도의 기병을 앞세운 징기스칸의 군대는 전쟁에서 적을 잔인하게 다루기로 유명했다. 저항이 심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극도의 잔인함을 보였다. 이들의 잔인함은 금방 소문으로 퍼져갔다. 징기스칸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문만으로 상대방은 패닉(panic)에 빠졌다. 그의 군대가 무인지경을 달리듯 영토를 정복해 간 것은 당연해 보인다.

역병도 그러하다. ‘바람이 불어오기도 전에 눕는 풀’은 역병 감염의 생태를 반듯하게 비유한다. 역병 사태를 맞는 인간은 병에 들기도 전에 심리적으로 더욱 심한 감염에 이른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에 시달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정치의 가장 중심 영역이 공포에 쓰러지지 않는 민심을 주도하는 것이었다. 이는 물론 단순한 홍보나 선전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소통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야 하는 도전이 놓여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소통은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소통의 과업이어야 할 것이다. 마땅히 소통의 윤리와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인문 가치를 도울 수 있는 방향도 함께 고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소문(소통)의 생태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새롭게 주목하게 된다. 그래서 ‘소통의 과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롭게 리모델링 되지 않으면 안 된다.

### 3. 질병의 상징화 : 인문적 통찰의 가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인류적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상징화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쏟아져 나오는 코로나 담론들의 전체 지형도와 가치 방향을 정립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인문학적 성찰이 매우 중요하다.

역병은 전쟁보다도 더 강한 힘을 발휘했다. BC 699년경, 고대 중동의 강대국 앗수르의 산헤립 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대를 위협한다. 이집트를 치려고 하니 유대는 길을 내라고 한다. 유대 왕

히스기야는 그들의 신 여호와에게 기도하며 막으려 한다. 그러나 유대가 앓수르를 전쟁으로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왕과 백성이 열성으로 기도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성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그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앓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시체만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구약 열왕기하 19장 35절)*

일부 성서 해석학자들은 앓수르군의 전멸을 페스트 역병이 돌았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또한 당시의 관점에서 역병을 상징화 이념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징화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공동체적인 힘으로 작용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징기스칸의 군대를 무력화 한 것도 페스트 역병이었다. 유럽 정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퇴각한 데에는 많은 군사를 페스트로 잃은 것도 한 요인이었다. 잔인함과 무서움의 소문을 몰고 두려움에 떠는 상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던 군대도 역병이 몰고 다니는 죽음의 위세에는 질 수밖에 없었다. 질병이 역사에 관여하는 바는 이미 그 분야 연구의 한 범주가 되어 있다. 코로나 질병의 역사성과 시대성에 대해서 학문적 통찰이 풍성하고, 그것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정신 면에서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대하소설 <장길산>에도 역병 이야기가 매우 리얼하게 나온다. 조선 시대의 이야기이니 페스트는 아니고, 장티푸스 역병이 어떤 고을에 만연하게 된다. 관청이 취한 조치는 끔찍하다. 고을 사람들을 일체 마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는 그 마을을 통째로 불을 질러 버린다. 환자는 물론 가족과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있는 채로 마을 전체를 불 싸질러 버리는 것이다. 그 옛날 역병 만연시, 그 나름의 대처 매뉴얼 대로 행한 조치이었던지도 모르겠다. 참혹 처절함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일은 다시 소문에 실려 공포의 바이러스가 되어 세상 사람들 마음에 옮겨 갔으리라. 당시 사회는 이런 조치를 어떻게 의미화하고 문화 상징으로 공유했는가. 이런 처방 원형이 인문학적으로 또는 문화 상징 면에서 어떤 가치를 내포하는가.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고, 그런가 하면 분노를 상실하기도 한다. 만인은 만인을 탓한다. 그런가 하면 타자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진다. 당국이 발표하는 새로운 환자 수와 사망자 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진지하게 품었던 애도 연민도 조금씩 사라진다. 그저 무표정한 수치로만 읽을 뿐이다. 오늘 우리가 겪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방불하다.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으며 무엇을 얻고 있는가.

신의 영역에 있는 바이러스의 세계와 인간의 영역에 있는 면역의 세계는 서로 ‘밀고 당김의 긴 역사’를 가져왔다. 질병을 통하여 인간은 고통을 겪으며, 바닥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성찰의 시간을 겪는다. 질병의 진화만큼 인간의 면역 기제도 진화한다. 인간의 정신도 그러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진지하기만 하다면, 비관도 힘이 된다. 카뮈의 소설 <페스트>의 맨끝 대목에서 나는 그런 암시를 받는다.

*전염병이 물러갔다. 시민들이 환성을 지른다. 시내에서 올라오는 환희의 외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리유(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이 소설의 기록자, 그의 직업은 의사이다.)는 그러한 환희가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기쁨에 들떠 있는 군중이 모르는 사실, 즉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그 균은 수십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고 있을 수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아마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또다시 쥐들을 흔들어 깨워서 어느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민음사 발간, 알베르 카뮈 지음, 김화영 옮김, ‘페스트’ 중에서)*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1913-1960)>

우울하고 불길한 비관을 문학 작품의 결말에 놓으면서 묵시록 같은 경고를 하는 작가의 인문 정신, 그 요체는 무엇일까. 역병의 안과 밖에서 작용하는 모종의 섭리 같은 것을 읽어내는 데에 세계적 작가의 역량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 그러한 통찰은 비관을 곧추세우는 데로 나아간다. 비관의 힘이야말로 인문 정신의 진수인지도 모른다. 인간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았을 때, 어떤 진지함이 고이고, 그 진지함이 의미 있는 비관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의 경험도 기술적 처방의 해법 이전에 비관의 통찰을 소중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 II.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통찰

### 1. 소통의 과잉과 결핍

‘Uncontact’는 코로나 시대를 대표적으로 표상한다. 세계인 전체가 일치되게 비접촉 비대면의 행동 모드를 시대의 코드처럼 내면으로 체질화하고, 사회는 공동체의 문화로 규범화하였다. 그만큼 이 시대인 모두에게 심리적 가이드가 되어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 소통은 현저히 줄어들지만, 간접적 소통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각종 교육 공간에서 이루어진 교육 소통들은 대부분 온라인 소통으로 대체되었음이 이를 입증한다. 간접 소통의 과잉과 직접 소통의 결핍이 두드러진다. 이를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식적 소통(formal communication)은 넘쳐나는 대신에 비공식적 소통(informal communication)은 결핍으로 치닫는다. 다문화적 소통 사태에서 비공식적 소통의 결핍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인들의 문화적 적응이나 문화 접변의 선순환을 방해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 자체가 물고 온 인종주의적 차별을 목도하기도 했지만, 그나마 있어왔던 다문화 생활 공간에서의 비공식적 소통이 약화하면, 다문화의 유연성 자체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 이는 또한 소통 현상의 경직성을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과잉과 결핍 생태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기반한 각종 SNS 망의 활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런 소통 생태에 더하여 코로나 사태의 ‘소문 소통 현상’이 과잉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짜뉴스의 진화를 볼 수 있었다. 진단하건대 소위 가짜뉴스는 미래사회 문화 생태의 상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악의가 없는 가짜뉴스를 너나없이 모두 발신하는 그런 생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짜뉴스의 결과는 악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정적 영향이 도드라지는’ 모습을 띠는 것이다. 이는 근대의 퇴조, 즉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의식과 권력의 질적 변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통의 기술 문화적 양태가 달라지면서, 포스트 모던의 기류가 이 땅에 불어오던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가짜뉴스를 정치 정파적으로 타박하는 발신들도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는 가짜뉴스의 자질을 지니게 된다. 어찌 보면 이는 의도나 의지로 다스려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생태의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자는 계몽보다는 가짜뉴스에 대한 감식력을 길러주는 교육, 그런 감식력을 사회적 교양으로, 또는 민주시민적 자질로 공유하는 지향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만들지 말자’는 주장과 ‘건강한 감식력을 기르자’는 주장은 보기에 따라서는 같은 주장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만들지 말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건강한 감식력을 기르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 가짜뉴스의 거짓됨을 몰각하자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짜뉴스는 그런 범죄적 가짜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이에 만들어 발신하는 전언들의 사실적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이다.

소통 문제의 핵심은 전언의 불완전성이 높아진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소통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소통의 과잉 공간은 그것대로 불완전한 뉴스를 전파하고, 소통의 결핍 공간은 그것대로 불완전 뉴스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소통의 과잉 공간과 소통의 결핍 공간은 교육적, 경제적, 문화적, 세대적, 계층적 양극화를 각각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과잉 공간과 결핍 공간 사이의 소통은 매우 위축될 것이다.

## 2. 실존적 주체의 왜소화

코로나 체험과 그 대처가 강력한 사회적 의제 및 사회적 체험으로 공유되면서 공동체 중심의 전제성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포스트 모던의 탈근대를 주창하던 시대의 주체와 자아는 위축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감염과 투병, 그리고 죽음 사이의 트랙이 강력한 국가 사회적 통제에 놓이면서 모든 개인 주체들은 현존과 소멸 사이에서 각자의 ‘실존적 주체’의 불안이나 허망함의 인식을 경험하고 있다.

자아의 모색을 독립적인 주체의 자리에서만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타자와의 관련 속에서 자아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상수의 조건이 되었다. 타자에 의한 감염이 공포의 감정으로 일상화된 데서 오는 변화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자의 소외를 자동화하는 심리적 기제가 일상화 된다. 나 역시도 타자에 의해서 그런 소외를 일상으로 당하고 있는 생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의 발견과 지향을 위해 담론적 실천적 노력을 해야 한다. 자아와 주체가 위축되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건강한 윤리에 의해서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라는 의제를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구축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새삼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영성의 개발과 교육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아와 공동체의 바람직한 상호성을 구축하는 착안이 되리라 본다. 아래에 소개하는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가 주는 울림을 음미해 보기를 바란다.

빈자(貧者)들을 위한 헌신과 사랑으로, 세계인을 경건하게 감복시켰던 마더 테레사 수녀(Mother Teresa, 1910-1997)가 1992년에 쓴 책, ‘The Joy of Living’에는 다음과 같은 그녀의 체험담이 나온다. 인도 콜카타(Kolkata), 극빈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던 때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한 늙은 남자가 나에게 찾아와, 자기가 사는 마을에 여덟 아이가 딸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뭔가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말했다. 나는 그날 밤 내가 겪었던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쌀을 좀 챙겨 그 집으로 갔다. 그 집 엄마는 내 손에서 쌀을 받아, 그것을 돌로 나눈 다음, 밖으로 나갔다. 나는 배고픈 기색이 역력한 어린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엄마가 돌아오자, 나는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았다. 아이들 엄마는 아주 짧게

대답했다. “그들도 배가 고파요.” 아이들 엄마가 말하는 ‘그들’은 이웃집 식구였으며, 엄마는 이웃집 식구들도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이웃에게 쌀을 주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 이웃도 배가 고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나는 차마 이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는지 물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필시 오래 굶주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엄마는 자신이 고통을 겪는 중에도, 그 몸이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는 중에도 이웃집 역시 굶주린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Kenneth E. Bailey, 박규태 옮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2016)

위의 마더 테레사 체험담을 소개한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Kenneth E. Bailey)는 이 대목에서 예수가 가르쳐 준 기도, 즉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마다 날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사람들에게 제시한다. 바로 이 구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 또한 이 주기도문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우며 기도드렸던가. 그랬던 만큼이나 일종의 상투적 표현으로 자동화되어 외우기만 할 뿐, 내 안에서 별다른 각성이 없었다. 그냥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케네스 베일리는 이 기도문의 구절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점을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인도 콜카타 빈민촌에서 여덟 명의 자녀와 함께 오랜 굶주림에 지쳐 있던 엄마는 알고 있었다. 그 엄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들어 있는 나눔과 공동체의 의미를 참으로 경건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마더 테레사도 “나는 그날 밤 내가 겪었던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 3. 몸과 감성의 인식론

포스트 코로나에서 주체와 자아는 존재 불안감과 더불어 쇠퇴하고, 공동체는 전체성의 규범으로 내달아 경직되고 주체와 대립할 수 있다. 소통은 과잉과 결핍의 양극화에서 전언의 진정성과 온전함이 훼손되어, 가짜 전언이 일반 생태 환경처럼 될 수 있다. 몸과 감성의 인식론이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험의 인식론, 체험의 교육론, 체험적 소통론, 체험의 인문학이 대안적 프레임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

코로나 사태에 Uncontact의 프레임이 시대를 지배하며 소통의 간접화와 각종 메시지의 중첩되는 매개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몸의 영역 즉 체험의 미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실존 주체들 간의 소통은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소통이 비즈니스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소통의 표준 모델처럼 다가올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제4차산업혁명의 효용 담론들이 이런 점을 주목해 찌 않는다. 인간에 대한 소통(담론)이라 하더라도, 이미 데이터로 수렴된 인간(또는 현상)의 조건들을 검색 진단한 이후에 소통을 시작한다.

몸이 발신처와 수신처가 되어서 하는 소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는 결핍에 대한 요구로서 대두하는 것이므로 절실함의 정도가 강할 것이다. 몸이 감당하는 인간의 존재 증명을 원하는 인문 담론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의 소년기 겪었던 체험의 가치에 대한 기록을 간략히 소개한다. 교육적 함량이 풍성한 체험으로 기억하고 있다.

6학년 때 몸으로 감당한 체험이 있었다. 우리 학급에서 기르던 100근 정도의 돼지를 학교 안 돼지우리에서 도난당했다. 아침에 당번 학생이 먹이를 주러 돼지우리에 갔는데, 문이 부서져 있고, 돼지는 없었다. 밤새 비가 온 탓인지 숙직 선생님도 눈치를 채지 못했단다. 누군가 훔쳐 간 것이다.

그날 우리는 수업을 제대로 못 했다. 남자아이들 20여 명은 학교에서 12km 떨어진 ‘해평’이란 곳으로 갔다. 나도 갔었다. 그날 해평에서는 5일 장이 섰다. 도둑이 해평 장터에 돼지를 팔려고 올 것

이다. 집단 지성이랄까. 나름의 중지를 모아서 간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해평 장터에서 우리의 돼지를 찾았다. 도둑은 돼지를 버리고 사라졌다. 찾은 돼지와 함께 우리는 비가 부슬거리는 길을 걸어 학교로 돌아왔다. 왕복 60리를 걸었지만, 지친 기색도 없었다. 우리는 개선장군으로 돌아왔다.

참으로 엄청난 체험을 했다. 지식 체험은 물론, 정서, 사회성, 도덕성, 인성 등이 동시 학습의 기제로 나의 체험 안에서 발효되었으리라. 체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체험에서 내가 학습한 것은 무엇일까. 분석으로 쉽게 파악될 성질의 학습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상당한 양과 질의 학습이 이루어졌으리라. 지금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체험으로 남아 있다. 그 체험은 이후 나의 배움에 어떤 동력으로 작용했을까.

근대 '이성의 시대'에 지식은, 논리화되고 개념화된 이른바 '과학으로서의 지식'이어야 했다. 학교는 바로 그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 힘을 다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언어적으로 정제된 기술(記述) 방식을 가지고 학문의 체계에 녹아들었다. 지식 능력이 언어 능력과 비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런 지식 토양 위에서 학교 교육은 근대의 '합리성'을 강화하였다. '합리성'이란 이성에 부합하는 정신과 지식을 표상하는 개념 아니겠는가.

학문의 체계를 갖춘 '분과 학문(분과 지식)'이 '학교 교육의 내용(curriculum content)'으로 굳건한 자리를 점해 왔다. 근대를 보내고 탈근대의 담론이 무성하지만, 학교 교육을 둘러싼 지식 문화의 유전자는 이런 분과 지식을 표준형으로 한다. 그 문화 유전자는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다. 극단의 경우, '언어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 앎'이 생긴다.

이런 입지에서는 일상의 경험이나 체험이 이들 지식과 맞먹는 위상을 가지기란 쉽지 않다. 체험 자체를 전통의 지식과 맞먹는 자격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근래에 와서이다. 더구나 앎의 선형성(先驗性), 즉,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또는 이전에 들은 기억으로 앎이 생성된다는 관점과 마주칠 때, 체험은 더욱 왜소해지고 위축된다.

지식에도 문화가 있다. 무엇을 지식으로 볼 것인가. 어떤 지식은 가치 있는 지식이고, 어떤 지식은 가치가 부족한가. 지식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한 국가나 사회가 일정하게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나 태도가 '지식 문화'이다. 예컨대 체험에서 얻은 앎은 정제된 지식으로 개념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면, 이는 곧 그 나라의 지식 문화에 해당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체험에서 얻은 앎도 충분히 논리화 개념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한 사회가 널리 공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 일종의 지식 문화에 해당한다.

우리의 지식 전통은 어떠한가. 지식이 진리를 표상하는 역할을 하고, 이치의 이상을 담을 때, 높은 수준의 지식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던가. 몸으로 하는 것은 선비들의 일이 아니고, 아랫것들에게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런 지식 관의 전형이다. 그래서 지식을 인식하는 태도에서 '체험'을 지식으로 보지 않고, 지식을 구성하는 하위의 재료 정도로 보려 했다.

몸이 감득하는 소통과 인식에 대한 소구가 높아질 것이다. 기존의 몸 담론과는 다른 인식론을 시대가 요구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에는 '새로운 개념의 몸'이 나올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